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영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502호

Wednesday, March 4 2026 A

이란, 동시다발 에너지 습격 ... 코스피 7% 폭락

이란 "호르무즈 통과 편 불태울 것" 사우디 정유-카타르 LNG시설 공격 코스피 5800 깨져, 낙폭 역대 최대

미국-이스라엘에 전면 보복을 공언한 이란의 포문이 중동 곳곳의 석유-가스 시설로 향하고 있다. 전쟁이 무력 충돌에서 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로 번졌다.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커졌다. 3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452.22포인트(7.24%) 내린 5791.91로 마감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크게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낙폭은 역대 최대였다.

블룸버그는 3일(현지시간) "중동의 핵심 에너지 자산(Key Energy Assets)이 공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심 에너지 자산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중동 대표 산유국의 에너지 인프라다. 터키 알말라키 사우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오전 동부 해안 라스 타누라(Ras Tanura)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려던 드론 2대(이란 공군 추정)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잔해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는 가동을 중단했다. 이곳은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중동 최대 규모 아랍코 정유시설이 있다. 이곳이 타격을 입으면 아시아-유럽행 원유 선적



호르무즈 봉쇄, 발 목인 선박만 750척 3일(현지시간) 이란(위)과 아랍에미리트(아래) 사이 호르무즈해협을 넘지 못한 크고 작은 유조선(붉은 점)들이 해협 좌우 해상에 정박해 있다. 선박 750여 척이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린트래픽닷컴 캡처]

에 즉각 차질을 빚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같은 날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 라스 라판(Ras Laffan)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도 가동을 중단했다. 카타르는 전 세계 LNG 공급의 약 20%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이란의 노림수가 있다. 미

군기지를 직접 타격하려면 총출한 요격망부터 뚫어야 한다. 대신 세계경제의 혈관인 에너지 인프라를 마비시켜 미국과 유럽-아시아 우방국을 압박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이란의 위협도 거세졌다. 에브라힘 자바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보

좌관은 이란 ISNA통신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에브라힘 자바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보좌관은 이어 "호르무즈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이든 불태우겠다. 단 한 방울의 석유도(호르무즈를) 못 빠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해상 원

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에너지 동맥'이다. 다만 미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만 해도 이란 정권은 오만만에 11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제로(0척)가 됐다"며 이란 해군을 궤멸했다고 주장했다.

국제 유가는 치솟았다. 지난 2일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증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상승했다. 장중 한때 82.37달러를 찍으며 13% 급등했는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과 LNG 일본, 한국 마커(JKM)도 40% 안팎 급등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전 세계 소비자물가를 0.6~0.7%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물가를 고려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 심리에도 악재다. JP모건의 최고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은 "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생각한 것보다 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중동 상황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에는 심리가 중요하다"며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환·박유미 기자

IAEA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계속 가동하는 듯"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 중으로 보인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모

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IAEA는 영변의 5MW(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계속 가동 중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했다. 또 지난해 1월에서 9월 사이 방사화 학실험실의 가동이 관측됐으며, 지난

원자로 가동으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이 기간 재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IAEA는 강선 농축시설과 유사하게 전력 공급-냉각 시설을 갖춘 영변의 새 건물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 외부는 완공됐으며 내부

설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LWR)는 지난해 8~11월 가동을 중단했다가 이후 다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중대한 변화의 징후가 없었으며 핵

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IAEA는 2009년 4월 추방된 이후 북한 핵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로 위성사진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심화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매입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미 방공망 뚫은 한 발... '스쿼터' 노리는 김정은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미사일)

“요새화된 작전센터 뚫고 들어왔다”
미 국방, 스쿼터에 미군 사망 시인

“우리는 놀라운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주 드물게(every once in a while) 이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를 스쿼터(squitter)라고 부른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미사일 반격으로 미군이 사망했다고 설명하면서 소수의 스쿼터가 피해로 이어진 사실을 시인했다. “그게 요새화된(fortified) 전술작전센터(TOC)를 타격했다”면서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덴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수백 개의 이란 탄도 미사일을 막아냈다”고 자부했지만, 막지 못한 한 발이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란 스쿼터의 ‘가성비 위력’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란과 수십 년간 미사일 협력을 지속해 온 북한 역시 대량의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



2일 이란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드론의 공습 이후 검게 탄 채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타누라의 정유시설. 라스 타누라에는 중동 최대 규모 정유시설이 있다. [연합뉴스]

일 등을 섞어 쓰는 포화공격 태세를 갖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이어 두 번째 ‘테스트 베드’를 획책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방공망이 놓친 한 발이 준 피해는 적지 않았다. 미 CNN방송

에 따르면 쿠웨이트 남부 항구도시 슈아이바 민간 항구에 마련된 미국 임시 TOC를 이란이 공격한 건 1일 오전 9시 직후였다. 대피 경보를 울릴 새도 없이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미 CBS방송은 3일(현지

시간) 군 소식통을 인용해 초기 피해 평가 결과 TOC가 이란의 자폭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란은 ‘샤헤드(Shahed)-136’ 소형 자폭드론을 운용하고 있다.

보통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은 리커(leaker)라고 부르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스쿼터로 칭한 것도 눈길을 끈다. 스쿼터는 통상 공습 등 작전 직후 목표 지점에서 도망치는 적군을 의미한다. 헤그세스가 스쿼터라는 단어를 쓴 건 운 좋게 방공 체계의 틈을 뚫은 예외적인 돌발 상황이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북한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양육 아산정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선 일단 한 발이라도 한·미의 주요 표적을 때리면 되는 해볼 만한 가성비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물론 ‘요격률 100%’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90% 이상만 돼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지만 최근 전투의 추세는 적의 방어망 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공격 자산을 동시에 퍼붓는

포화공격 양상을 띤다. 100발이 쏟아질 때 90%의 요격 성공은 10발의 피해를 남기지만, 남아오는 발사체가 100발이 되면 90%를 잡아내도 100발은 맞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특수’를 맞아 무기 현대화와 생산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초대형방사포(KN-25) 관련 현장을 수차례 현지지도했는데, 이는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에 넣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다. 북한은 핵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1990년대부터 이란과 미사일 협력을 해온 데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가 미 측 방공 자산 체계와 유사하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양위원은 “군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공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이화 하계대학 장학생 모집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워싱턴 DC 지회가 이화 하계대학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미국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6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4주간 한국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하계대학 프로그램

의 학비(2과목)와 기숙사비가 제공된다. 지원자는 이화국제하계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고 지원비를 납부한 후, 이화국제재단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 마감은 4월 5일(일)이며, 장학금 세부 내용과 선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워싱턴 DC 지회 웹사이트에서(ewhadcchapter.org) 확인할 수

있다.
본 장학금 (The Claire Kwi Hyun Kim Scholarship)은 2022년 김귀현 동창(영문 '56)이 신설했으며, 미국에서 성장한 차세대 한인 학생들이 이화 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도록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 신청 문의 admin@ewhadcchapter.org / office@ewhafoundation.org / ewhafdn@gmail.com

홍알벤티 기자

군 복음화 사명 이끌 새 일꾼 선출

지회장·이사장 취임 기념예배



윤용주 목사

한세영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워싱턴지회가 오는 3월 8일(일) 오후 4시 메릴랜드 버틀스빌 소재 코너스톤커뮤니티교회(담임 윤용주 목사)에서 새로운 일꾼을 선출한 것에 대한 취임예배를 갖는다.

올해 새로 선출된 임원은 지회장에 윤용주 목사, 그리고 이사장에는 한세영 목사 등이다.

워싱턴지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로 “100만 장병을 한국교회로 파송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군 복음화 사명을 이어갈 일꾼들을 선출한 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들의 취임을 널리 알리는 예배를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워싱턴지회는 젊은 장병들이 군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고 복음의 전사가 되는데 함께 할 목회자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한다며 이번에 마련한 취임예배에 정중히 초청한다고 밝혔다.

윤용주 신임 지회장은 1대 손인 화 목사, 2대 이석해 목사에 이어 선출됐다. >문의: 571-486-6430 총무 박희숙 목사, 교회협력후원문의: 301-452-6271, 코너스톤커뮤니티교회 주소: 4200 Sandy Spring Rd., Burtonsville, MD 20866

홍알벤티 기자

한인식당 매니저, 애난데일서 차에 치여 사망

56세 여성 김선효씨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지난 달 28일 길을 건너던 한인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페어팩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백릭 로드와 레이브스위스

로드 사이의 존 마 드라이브를 건너던 애난데일 거주 김선효(56, 한인 식당 매니저로 알려짐)씨가 서쪽 방향으로 달리던 2013년형 BMW 차량에 치였다.

김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BMW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

로 보고 과속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정보가 있는 사람은 703-280-0543이나 1-866-411-8477로 제보를 당부했다. 익명 제보자에게는 현금 보상이 지급된다.

한편, 김씨는 올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네 번째 보행자이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5일(목)	65-45	8일(일)	72-51
6일(금)	57-43	9일(월)	74-54
7일(토)	70-58	10일(화)	80-63

3월 4일(수) 54-4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가치적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모두를 위한 음악’ ...진정한 봉사로 지역사회 큰 울림

MFA가 초아 올린 희망의 연주 달레스타운센터 ‘설 축제’ 감동

음악을 매개로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화합의 장이 버지니아주 스텔링에서 펼쳐졌다.

한인 학생 주도의 비영리 음악단체 ‘모두를 위한 음악(Music For All, 이하 MFA)’는 지난 달 21일 달레스타운센터에서 열린 ‘설날 축하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오프닝 연주를 장엄하게 해내 화제가 되고 있다.

MFA는 이날 한국적 정서를 담은 작품과 현대적 감각의 레퍼토리를 조화롭게 선보이는 동시에 수준 높고 심금을 울리는 연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주류사회를 넘나들며 폭넓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MFA는 현재 회장 엘린 콰크(Ellin Kwak)과 트리스



지난 달 21일 달레스타운센터에서 열린 ‘설날 축하 행사’와 센터빌고등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공식 초청받아 오프닝 연주를 하고 있다



탄 박(Tristan Park)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제이미 문, 매디슨 배, 클로이 김, 올리버 장, 코너 김, 알렉산더 문 등 북버지니아 지역 페어팩스·라우던 카운티의 중·고등학교 연주자들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공연 후 문일롱 페어팩스 카운티 교

육위원은 “음악을 넘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공연에서 연주된 ‘Korean Simple Suite No. 1’과 ‘Slavonic Fantasy’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으며, ‘Golden’이 전하는 희망적

인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Arirang Rhapsody’에 대해서는 1993년 영화 「서편제」를 떠올리게 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한국 전통 선율의 감동이 무대를 통해 잘 전달되었다고 밝혔다.

로렌 스미스 달레스타운센터 마켓

팅 매니저는 “MFA를 초청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공연은 행사에 큰 활기와 감동을 주었다”며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초청 의사를 내비쳤다.

MFA 학생들은 이날 행사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한 도자기 그릇과 액세서리를 판매해 모은 기금 전액을 센터빌고등학교 한국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전달해 찬사를 받았다.

주미향 박사의 지도 아래 학생 리더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MFA는 솔로와 앙상블 페스티벌 및 스트링 리사이틀 반주 지원 프로그램, 무료 챔버 클래스 운영, 요양원과 병원 방문 연주 등 다양한 음악 관련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 박사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회와 나누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 개최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회장 우태창, 이하 연합회)는 3일 에텐시니어데이케어 센터(대표 혜경 스킨렛)에서 제107주년 삼일절 기념행사를 열고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우태창 회장은 축사에서 “1919년 온민족이 하나 돼 일제 식민통치에 항거했던 선열들의 애국정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살아 있는 기준”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 1960년대 ‘우리로 잘 살아보세’라는 일념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를 세운 주역들”이라고 강조했다.

우회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과 국가 도약을 이끌어낸 밑거름이자 주춧돌 역할을 해 오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혜경 스킨렛 대표도 인사말에서 “태



극기를 마음껏 흔들 수 없었던 시절,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 “후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이 지역 시니어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악진흥회 워싱턴

지회(지회장 변재은)의 한국무용 공연과 이정영 씨의 타악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연합회는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들을 전심으로 돌보는 에텐시니어데이케어 센터 교사들에게 유니폼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헌신해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윤미 기자

애난데일 한인타운 개스값 3.08달러

3일 전미자동차클럽(AAA)에 따르면 미주에서 휘발유 1갤런당 평균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11센트 올라 약 3.11달러를 기록했다. 애난데일 한인타운을 포함한 페어팩스 지역은 3일 오전 11시 현재 평균 3.08달러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도 정유업체들이 여름철 연료로 전환하면서 개스 가격은 이미 상승세였지만, 이번 주에는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 원유 선물 가격이 급상승했다.

2일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드론 공격을 포함한 일련의 보복 공격을 시작하면서 유가 선물 가격이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6% 상승한 배럴당 77.36달러를 기록했고,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81.29달러로 6.7% 올랐다.

금융정보 분석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에도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료비 상승은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송비와 물류비가 오르면 식품과 각종 생활품 가격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환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립대사 명방과 교수명사
- 서울중의대학 중의과박사
- 임상 25년 경험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KCSC
워싱턴한인복지센터

52주년 기금 모금 만찬

“One Heart, One Vision, One Community”

일시 2026년 4월 12일 (일)
오후 5:00 리셉션, 오후 6:00 프로그램

장소 Hilton McLean Tysons Corner
7920 Jones Branch Dr. McLean, VA 22102

- ▶ 후원금: \$200/인
- ▶ 참석 및 후원 문의: 2026년 4월 3일까지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지니아 지역: 703-354-6345 ■ 메릴랜드 지역: 240-683-6663

후원자 명단 (3/2/2026 현재)
변성림 이사, 복지센터 주택공사, 연수진 이사, 워싱턴성광교회, 지대성 이사, Forrest Hare, Jurie Foundation, Karen Ahn, Matthew & Katherine Lee Foundation, Norma Kim, Steven Toy & LinkedIn, Yongkoo Kang & Netflix

워싱턴한인복지센터 이사
김진아, 존 김, 임혜진, 연수진, 지대성, 강수진, 고인호, 길종연, 김상희, 김종준, 김현수, 박은영, 변성림, 사라 강, 서진우, 임영, 조성목, 헤롤드 변

이사장: 김진아 / 만찬 위원장: 김현수 / 만찬 부위원장: 박은영

탈북민 강연 무산, 좌파단체 방해 의혹

박연미 게티즈버그대 강연
가짜 전단지·홍보물 훼손 몸살
급진 단체 개입 정황 제기



연 등을 통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등 좌파 진영 어젠다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탈북민 박연미(사진)씨의 대학 강연회가 조직적인 방해와 허위 정보 유포로 결국 취소됐다.

이 같은 방해 배경에는 급진 좌파 성향의 트랜스젠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데일리콜러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즈버그 대학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씨 강연이 돌연 취소됐다.

행사를 주최한 교내 학생 단체 YAF(Young Americans for Freedom)는 강연 직전 캠퍼스 내에 배포된 가짜 전단지와 홍보물 훼손 사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탈북민이자 아이비리그 대학인 컬럼비아대 출신의 박씨는 국내에서 강

YAF 측은 이날 강연회 취소를 두고 누군가 기존 홍보 전단지를 위조해 낱자와 시간, 장소 등을 허위로 수정한 뒤 캠퍼스 곳곳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고, 행사 참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조작된 전단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날짜인 '2월 31일'이 행사일로 기재됐으며, 입장 시간도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5시로 잘못 표기됐다.

특히 행사 티켓 정보가 담긴 QR코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적 성전환을 지지하는 트랜스젠더 단체 '트레버 프로젝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박연미 씨의 강연회 홍보 포스터가 찢겨져 있다. [데일리콜러 캡처]

해당 가짜 전단지에는 YAF 로고가 그대로 사용돼 YAF의 공식 입장과 무관한 내용이 단체 측 입장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었다. 주최 측은 해당 전단지가 교내에서 인쇄됐

다면 인쇄 기록 추적을 통해 관련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전단지는 찢기거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주최 측은 "행사 참석을 의도적으로 저해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게티즈버그대 YAF의 상위 단체인 영 아메리카스 파운데이션측도 성명을 통해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이 유지한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토론의 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게티즈버그대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강연 예정이던 박씨는 1993년 북한 양강도에서 태어나 2007년 모친과 함께 탈북했다. 이후 중국과 몽골을 거쳐 2009년 한국에 정착했다. 한국에서 동국대학교에 재학하다가 2015년 컬럼비아대 편입을 계기로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2021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김경준 기자

알림

월드컵 100일, 배너로 응원하세요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이곳 북미 대륙에서 다시 한번 16강의 신화에 도전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며 우리 한인사회가 거주하는 바로 이곳이 주무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그래서 주요 한인 단체들은 대한민국 경기가 열리는 날, 한인타운에서 수 천명이 모이는 대규모 합동 거리응원을 펼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도 6월의 뜨거운 응원 함성에 힘을 보태고자 '월드컵 응원 배너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LA 한인타운 주요 도로

4개 구간의 가로등 120개에 설치됩니다.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24시간 노출되며 태극기 바탕의 응원 메시지와 광고주 브랜드가 양면으로 인쇄됩니다.

가로등 배너는 단발성 광고와 달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두 달간 수 백만명에 달하는 유동인구의 기억에 각인될 수 있는 강력한 현장형 미디어입니다. 따라서 현장 인근 방문객의 매장 방문을 기대하는 업소들에게는 특히 높은 광고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은행, 호텔, 자동차, 레스토랑, 카페, 베이커리, 병원, 미용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업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실 업주분들의 빠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213)368-2556
마케팅전략본부

청소년 정체성 확립 돕는 글짓기·그림 대회



효사랑선교회가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을 연다. 지난해 공모전 시상식 직후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효사랑선교회 제공]

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이 효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체성과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대상은 남가주를 포함한 미 전역의 1~12학년 학생이다. 선착순 100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다.

시상 내역은 글짓기와 그림 부문을 합쳐 대상 2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6명, 헤이븐상(11학년 2명, 부상: 무료 대입 컨설팅), 심사위원장상 4명이다. 헤이븐상 외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이 수여된다. 또 학년별 최고상으로 글짓기와 그림 각 12명씩, 총 24명에게 특별상을 준다.

입상한 타주 청소년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집으로 우송해 준다. 시상식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인 정치인이 수여

하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온라인 참가 신청서는 효사랑선교회 웹사이트(hyosarangusa.org)에서 QR코드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그림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부에나파크 사무실(Hyosarangus Mission,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에 제출하면 된다.

작품을 접수할 때 이름, 학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한다.

효사랑선교회는 4월 25일(토) 오후에 축하 공연을 결렬인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타주 수상자를 제외한 참가자는 시상식에 참가해야 상금과 상장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화(714-670-8004, 562-833-5520)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효사랑선교회 공모전 개최
미 전역 선착순 100명 참가
10일~31일까지 작품 접수

기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공모전은 '나는 누구인가(Who am I?)'란 주제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What I Love the most)'이란 부제로 열린다.

김영찬 대표는 "AI 시대가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가 청소년 정체성 확립을 돕는 '효 글짓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촬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oreadaily.com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락주 등)
웨이리노래방

미락주 등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리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한국팀 기 살린다” 멕시코 한인사회 들썩

북중미 월드컵 D-100

월드컵 계기로 한인회도 재출범
멕시코인들도 한국팀에 큰 관심
LA에선 단체 응원단도 구성중



다”며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첫 3경기를 멕시코(과달라하라·몬테레이)에서 치른다는 사실에 한인들 사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조별리그 경기를 치를 멕시코 과달라하라 등 현지 한인사회가 월드컵 열기로 들썩이고 있다.

오는 6월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공동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사회도 이를 계기로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이창선 과달라하라 한인회장은 2일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월드컵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모처럼 하나로 뭉치고 있

특히 과달라하라 한인사회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6년 만에 재정비됐다. 30년 넘는 역사를 지닌 한인회는 2020년 18대 회장단을 끝으로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활동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월드컵을 앞두고 한인사회 결집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19대 회장단이 새로 출범했고, 최근 첫 총회도 열렸다.

최근에는 마약 카르텔 조직 두목 사살 이후 한때 소요 사태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일상이 회복된 상태다. 한국 대표팀 경기 역시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회장은 “현재는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와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라며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방문할 응원단과 관광객을 위해 치안 안내 정보지를 제작해 여행사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달라하라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한인들은 약 400명 정도가 살고 있다. 한인회는 개최국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한국팀을 위해 단체 응원도 준비 중이다.

한국 대표팀이 경기를 치를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 경기장에서 현장 응원을 펼치는 한편, 티켓을 구하지 못한 교민과 방문객을 위해 현지 한식당 등

에서 단체 응원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과달라하라 한국문화원의 강학주 원장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강 원장은 “멕시코의 흡인 과달라하라에서 한국이 월드컵 무대에서는 것에 대해 현지인들의 관심이 크다”며 “멕시코인들도 한국 대표팀의 전력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LA 한인 관광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티브 조 아주관광 전문가는 “최대 50명 규모의 단체 응원단을 구성 중”이라며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한국 대표팀 첫 경기 전날 과달라하라에 도착해 11일 경기를 관람한 뒤 멕시코시티 투어를 거쳐 18일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한국-멕시코전을 보고

귀국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월드컵 특수로 과달라하라 현지 숙박 비용도 크게 상승했다.

조 전문가는 “현지 호텔 객실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평소 1박 100~150달러 수준이던 숙박비가 현재는 50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고 전했다.

직접 현장을 찾는 팬들의 기대도 높다.

LA에 거주하는 박범우(40) 씨는 “친구가 FIFA 추첨 티켓에 당첨돼 함께 가기로 했다”며 “한국 대표팀 경기가 LA에서 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가까운 곳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잘되면 이슬람공화국 2.0... 안되면 시리아 시즌2”

NYT 프리드먼이 본 이란의 미래
미·이란 전쟁, 신중동 vs 구중동 싸움
미, 잘풀리면 중동서 친미연합 확보
안 풀리면 다민족 내전, 극심한 혼란



이란 남부 마나브에서 공습 희생자를 위한 무덤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

지난달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질서 재편을 두고 벌이는 일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국가에 더해 이란까지 포함하는 친미 연합을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新)중동(New Middle East)’과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으로서 지역에 자신들의 이슬람 혁명 신정 체제 확산을 꾀해 온 ‘구(舊)중동(Old Middle East)’ 이란 간의 싸움이란 평가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2일 ‘트럼프의 이란 전쟁을 어떻게 봐야 하나(How to Think About Trump’s War With Iran)’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란 성직자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이란에서 자국 국민과 주변국을 향한 위협이 훨씬 덜한

‘이슬람공화국 2.0’이 탄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프리드먼은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리아·레바논·이라크·예멘을 장악하기 위해 친이란 대리 세력을 육성했다고 비판했다. 이슬람 종파 간 분열을 조장해 이들 국가에서 자유주의 개혁 세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란 움직임은 최근 2년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변화를 맞이했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크게 줄면서다. 시리아에선 친이란 아사

드 정권이 2024년 무너졌고, 레바논에선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던 총리가 지난해 실각했다. 프리드먼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소식이 두 지역에서 환영받는 것도 이란 영향력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프리드먼은 이란 내에서도 반정부 시위대의 인기 있는 구호가 “가자지구도, 레바논도 아니다. 내 생명을 이란을 위해 바친다”라며, 반미를 내세우며 대리 세력에 자원을 낭비하는 정권에 국민이 분개한다고 전했다.

프리드먼은 이번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한 새로운 중동 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고 봤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 등이 체결한 외교관계 정상화 협정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이란 정권의 전복 가능성은 낮게 봤다. 개혁파 인사들이 현 정권을 압박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경제 제

재를 해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 전개라고 평가했다.

프리드먼은 전쟁이 낙관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몰락해 가던 이란 정권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권 약화로 다민족 국가 이란에서 아제리·쿠르드 등 소수민족이 분리독립을 내세울 경우, 오랜 내전에 시달린 시리아처럼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호 기자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쓰레기 매립지 확장 두고 주민 반발 확산

샌후안캐피스트라노의 프리마 데세차 쓰레기 매립지 확장에 관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스오브OC의 지난달 26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의 불만이 깊어오르기

시작한 계기는 올해 초 매립지로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이 쓰레기 매립을 담당하는 OC웨스트&리사이클링(이하 OCWR)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후 카트리나 폴리 OC 5지구 수퍼바이저에게 주민의 불만 제기 민원 수백 건이 접수됐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CEO,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매립지 쓰레기 일일 처리량 증대 가능성을 논하는 공개회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023년 약 8800만 달러 규모의 매립지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당시 표결을 주도한 폴리 수퍼바이

저는 “우리 사무실은 OCWR이 쓰레기 일일 처리량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매립지는 줄여야 할 대상이지 늘려야 할 대상이 아니냐는 점을 더 잘 살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박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원유 의존도 높은 한국, 코스피 '검은 화요일' 못 피했다

이란발 악재에 코스피·환율 흔들
외인 순매도 5조 5천억 두 번째 규모
개인 5조 순매수에 폭락 못 막아
환율도 26.4원 오른 1466.1원 마감
관세충격 후 11개월 만에 최대폭↑

중동 사태의 충격을 하루 늦게 떠안은 코스피는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지수는 역대 최대 450포인트 넘게 급락하며 6000선이 깨졌다.
하루 새 시가총액(시총)은 약 377조 원 증발했다.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섰다. 외국인투자자의 5조원대 투매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에 마감했다.
지수 낙폭은 역대 최대며, 하락률도 2024년 8월 5일(8.77%) 이후 가장 컸다. 시총은 종가기준 4769조4334억원으로 하루 만에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하루 시총 감소액으로도 가장 크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9.88%)와 SK하이닉스(-11.5%) 등 대부분이 급락한 반면,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83%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 급락의 불씨는 홀로 5조1737억원을 팔아치운 외국인이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에 기록한 7



국제유가 급등, 불비는 주유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만남광장 주유소에 주유 대기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모습이다. 이라과 오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한다.

조812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기관투자자가 8859억원어치 순매도하며 '팔자'에 가세했다. 개인이 5조797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하락을 되돌리기엔 힘에 부쳤다.
한국 증시가 전날 3·1절 대체휴일로 하루를 쉬면서 다른 아시아 증시의 이탈치 낙폭이 한꺼번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이를 감안해도 낙폭이

컸다. 이틀간(2~3일) 일본 닛케이지수는 4.37%, 홍콩 항셱지수는 3.24%, 대만 자취안 지수는 3.08% 떨어졌다.
그간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점도 급락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동안 코스피는 두 달 만에 50% 가까이 올랐

다"며 "과열 정도를 측정하는 일간 이격도(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가 2월 말 증가 기준 115%를 상회해 닷컴버블 시절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 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할 거란 우려도 악재로 반영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서 1460원대로 오르면서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한 달러 매수 수요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iM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낙폭이 유독 컸다"며 "외국인 입장에선 안전자산 선호로 이번 이라과 사태가 적절한 매도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장에서도 개인의 매수 열기는 뜨거웠다. 증권사 커뮤니티에는 "이제 줍자" "내리기만 해봐라. 바로 매수해줄 테다" 같은 글이 종일 올라왔다. 조정을 투자 기회로 본 것이다.
김두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경험적으로 중동발 지정화 충격이 생겼을 때 장 초반 공포가 과도하게 가격에 반영되고 출구가 보이는 순간 위험이 빠르게 걷히는 형태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 여부와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 조정 국면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교정 확대에 따라 3월 초 코스피가 5000대 중반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6.4원 오른(원화값 하락) 1466.1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폭은 미국 관세 충격이 있던 작년 4월 7일(33.7원) 이후 약 11개월 만에 최대였다.
장서윤·김원 기자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마포경찰서 유치장 구금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강 의원은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후보자에서 낙마한 데 이어 불과 8개월여 만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되며 영어의 품이 됐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제(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달 5일 두 사람



왼쪽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오른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강 의원.

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으로 통과됐다.
경찰은 영장 심사에서 강 의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

로 전해졌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수사 첫날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행적이 도주와 증거인멸 정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뒷북 압수수색' 등 수사 내내 낙장·부실 논란에 시달렸던 경찰은 일단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경찰은 빠르면 4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여

전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서 두 사람의 대질 조사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강서구청장·영등포구청장 공천 로비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에 칼날이 향할지도 주목된다.
구속영장에서 정담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두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한 경찰은 본격적 법리 검토에도 착수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두 사람의 신병은 서울 구치소로 옮겨진다. 다음 주 중 검찰에 구속 송치될 전망이다.

부동산 재테크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20년 전문!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남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2025

Return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동유럽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5/18(월)-5/26(화)
\$3,2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1. 독일 : 유구한 역사와 동화 같은 린더호프 궁전 투어
2. 오스트리아 : 설산과 빙하가 어우러진 카푸른 절경과 합스부르크 왕가의 쉐부른 궁전 및 모짜르트 생가가 있는 팔츠깡머궁 유람선
3. 헝가리 : 유럽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부다페스트 다뉴브 야경 감상
4. 체코 : 프라하성 & 황금소로 내부 관광 및 유럽 3대 야경으로 손꼽히는 프라하 야경



한스 스페셜 당일 투어

세계 최대 실내 꽃축제
필라델피아 **마감 임박**
플라워쇼+시티투어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3/7(토) 당일투어 \$199
대형버스

DC 벚꽃 런치 크루즈
3/31(화) 당일투어 \$199

어쩌면 해피엔딩
3/21(토) \$289 **앵콜 6차!!**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1~5차 마감!! **대형버스**
한국 뮤지컬, 브로드웨이를 장악하다!

2026 한국 군악대와 함께하는
노퍽 군악 페스티벌
+보태니컬가든
4/19(일) \$249
티켓 포함, 점심식사 포함 **대형버스**

알래스카

6박7일 8/6(목)-8/12(수)
\$3,090 항공포함 인솔자:애나 김

-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대자연의 성지, 알래스카 미국 본토를 넘어 도착하는 새로운 세계, 대자연의 수도 앵커리지에서 여정이 시작됩니다.
1. 앵커리지 호텔 3박 업그레이드,
 2. 특식 알래스카 최상품 연어회와 와인 제공,
 3. 최고의 가이드



9박10일 10/8(목)-10/17(토)
오션뷰 \$1,690 볼티모어 출발
가을 단풍 크루즈
캐나다 & 뉴잉글랜드
보스턴(뉴잉글랜드)-포틀랜드(메인)-세인트존(뉴브런스윅)-할리팩스
항구 왕복 트랜스퍼/가이드/보스턴 시티투어 포함

한스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항공 불포함 인솔자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마감	08/15(토)-08/28(금) 그린랜드 + 아이슬랜드 13박14일 \$12,990 재키 조
일본 + 한국 + 중국 마감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마감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환상의 벗 마감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7박8일 \$6,995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 조	09/07(월)-09/16(수) 북스페인+산티아고 순례길 9박10일 \$3,890 애나 김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8박9일 \$3,490 조앤한	09/17(목)-09/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3,590 세라 정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마감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재키 조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1차 마감	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국 13박14일 \$5,390 조앤한
05/02(토)-05/13(수) 스페인 & 포르투갈 2차 마감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박11일 \$3,590 애나 김
05/06(수)-05/18(월) 그리스 & 튀르키예 마감	10/05(월)-10/17(토) 예술의 전당 -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12박13일 \$6,595 스페셜 기획! 재키 조
05/18(월)-05/26(화) 동유럽 4개국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 8박9일 마감임박! \$3,290 세라 정	10/8(목)-10/17(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루즈 9박10일 \$1,690 인솔자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11박12일 \$5,995 재키 조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세라 정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12박13일 \$4,490 조앤한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 마감
06/15(월)-06/25(목)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10박11일 \$6,695 재키 조	10/14(수)-10/24(토) 한국의 맛, 가을 단풍 여행 10박11일 \$2,990 인솔자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6,695 재키 조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490 조앤한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밴쿠버 IN/OUT 5박6일 마감임박! \$2,190 항공포함 세라 정	10/30(금)-11/11(수) 일본 알프스 투어와 맛여행 12박13일 \$5,995 재키 조
08/06(목)-08/12(수) 알래스카 앵커리지호텔 업그레이드 6박7일 \$3,090 항공포함 애나 김	11/6(금)-11/19(목) 요르단 & 이집트 13박14일 \$5,890 조앤한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14박15일 \$16,400	11/10(화)-11/19(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12박13일 \$12,900 조앤한	11/18(수)-11/27(금) 파타고니아 9박10일 \$7,095 재키 조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사파리 투어 7박8일 \$5,950	12/05(토)-12/18(금) 하와이 뉴질랜드 시드니 여행 13박14일 \$6,790 재키 조

워싱턴 DC \$100
3명 이상 출발가능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미리 예약하세요!
8명 이상 출발가능
뉴욕 1박2일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5/5(화) \$650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3/19(목) \$899

미동부 캐나다 월요일 출발
5박6일 3/30(월) \$1,350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쉬모어/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3박4일 5/22(금)-5/25(월) \$1,040 **항공불포함**

엘로스톤 5/8부터 3박4일 \$950 **항공 불포함** **매주 월, 금 출발**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불포함** **일요일 출발**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 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firm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통령 지적에도... 먹는 낙태약 도입 미루는 이유

업무보고 때 “속고만 몇년째” 질타 낙태죄 헌법불합치, 보완 입법 방치 식약처는 “법률 명시돼야 허가 심사”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도입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드러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조치를 미루면서 제도 공백이 7년째 이어지면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중지 약물(낙태약) 도입 절

차는 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는 “여성 건강을 위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와 허용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허가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부처들은 지난해 9~10월 회의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안전·건강을 위해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서두르지만, 의약품 허가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여부와 임신중지 허용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

다”고 맞서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낙태가 허용되는 임신 주수가 법률에 명시돼야 유해성 평가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외부 법률자문을 수차례 받은 결과 “모자보건법 개정과 무관하게 약사법 체계에서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우세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의 효력 상실로 품목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식약처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약물 도입을) 정부는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그런 상태죠?”라고 물

었다. 원민경 장관이 “여러 부처가 함께 속고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속고를 몇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입법도 지지부진하다. 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정부 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입장이 다른 데다 국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 책임이 있는 국회가 역할을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법·행정 공백 속에 낙태약 불법 유

통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682건, 최근 5년간 2971건이다. X(옛 트위터)를 통해 접촉한 한 판매자는 기자에게 “18만원을 주면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약품으로, 독일·영국·일본 등 100여 개국에서 사용 중이다.

여성계는 입법 전이라도 약물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연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정식 도입해 안전하게 관리된 의약품을 여성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

3일 서울 중로구 교보생명 외벽에 걸린 ‘광화문글판 봄편-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적’. 이번에 게시된 문구는 김소연 시인의 산문집 ‘한 글자 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시민 추천으로 선정됐다. 교보문고 측은 “꽃이 피고 새 생명이 다시 자라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며 “봄을 맞아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겨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산 천궁-II, 이란 미사일 잡았다

UAE “이란 적대적 위협 차단” 천궁 90% 이상 요격률 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공격 ‘장대한 분노’ 이후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서는 과정에서 국산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II(M-SAM2·사진)가 처음으로 실전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미사일 반격을 방어하는데 실전 배치된 대공 요격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천궁-II는 UAE 요격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군 당국도 천궁이 가동됐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맨 케인 미 합참의장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카타르, UAE,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포대들도 전투에 참여했다”며 천궁-II를 도입한 UAE의 방공망이 가동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앞서 UAE 정부는 2022년 35억 달러(약 4조원) 규모로 천궁-II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UAE 측에 따르면



천궁은 지난해부터 아부다비 남부의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됐다. 배치된 건 2개 포대라고 한다.

UAE 군 당국은 천궁으로 몇 발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UAE 국방부가 “이란의 적대적 위협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험발사에서 보인 90% 이상 수준의 높은 요격률이 실전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기자

“대립으로 얼룩진 나라, 포용·공존·절제가 답”

‘광복 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 이부영 등 원로 152명 공동체 논의

“극단적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나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기성 세대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상대를 배척하는 언어를 거두고 ‘포용과 공존, 절제’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는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광복 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를 개최해 이렇게 말했다. 포용과 공존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원로들이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2년 전 9월 13일 이부영 이사장과 준비위원 7인이 가칭 ‘2024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통합 국민 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데서 출발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종교계 지도자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전국 각지의 원로들을 면담하며 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결과 원로 152명이 공동체를 출범하는데 뜻을 모았다. 제안자 명단에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광복 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원로들은 사회 갈등의 책임이 기성세대에 있다며 ‘포용·공존·절제’를 강조했다. [사진 광복 100년 국민동행]

5·18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윤공희 대주교(전 광주대교구장)와 이해동 목사(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 원로목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포함해 강우일 주교(전 제주교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황석영 작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김종배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다.

3일 발표회 참석자들은 대립과 반목, 분열과 갈등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책임이 기성 세대에 있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포용과 공존, 절

제, 세 가지 가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 세대와 계층 사이의 거리감, 서로에 대한 불신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현재) 필요한 가치는 포용과 공존, 절제다.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정 전 총장도 “(현 상황을) 가만히 두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 준비위는 구체적 사업 내용 등을 확정해 8·15 광복절에 맞춰 창립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류효림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36년 만에 정월대보름 블러드문 3일 서울 서대문구 하늘에서 개기월식이 진행되고 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정월대보름이 겹치는 것은 36년 만이다. 이날 개기월식은 오후 8시쯤 시작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인생 망가졌다” 가슴기살균제, 피해등급 상관없이 위자료

등급 외 피해자도 대상, 월내법 처리 피해 없었다면 받을 소득까지 보상

박창연(59)씨는 2007년 근무 중 갑작스레 호흡 곤란을 겪고 응급실에 갔다. 중환자실 등을 거쳐 10일간 입원한 그는 급성 천식 진단을 받았다. 2년 전부터 가슴기살균제를 썼던 게 원인이었다. 이후 그는 정부로부터 가장 낮은 ‘등급 외’ 피해 판정을 받았다. 그가 받은 지원은 치료비 200여만원이 전부였다. 박씨는 “등산처럼 숨 차는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나이가 들수록 폐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박씨처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도 위자료 등 경제·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가슴기살균제 피

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로 확대하는 ‘가슴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슴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원했던 치료비에 ‘일실이익(逸失利益·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애에 얻었을 이익)’, 위자료까지 배상 범위를 넓힌다. 피해자가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질병에 걸리지 않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소득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가슴기살균제 참사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난제다. 2006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폐 손상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가슴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2011년 판매가 중단됐다. 그동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가슴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목담하고 있다.

안 가슴기살균제는 1000만 병 넘게 팔렸다. 이후 피해 보상 문제를 놓고 오랜 갈등을 겪은 끝에 15년이 지난 뒤에야 국가 책임이 명문화됐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등급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별로 배상액이 산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후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 등급을 ‘초고도’부터 ‘등급 외’까지 총 6가지로 분류해 구제급여를 지급해왔다. 올해 1월까지 5971명이 피해가 인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총 2080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까다로운 등급 심사 탓에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5일 기후부가 개최한 가슴기살균제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인과관계를 더 넓게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에서 등급을 매겨 1·2등급만 피해자로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을 하겠다고 한 만큼 적

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 개인별 배상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배상액은 심의가 끝나야 결정될 예정이나, 2022년 시작 조정 당시 9240억원으로 추산된 적이 있다. 정부는 배상액 중에서 20~30%를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손해배상 신청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손삼기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국외 체류나 중증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새롭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질환이 생기면 추가로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두달 번 홈플러스...상인들 “차라리 파산했으면”

법원, 회생절차 기한 2개월 연장 업주는 매출 정산금 연기 등 손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로 두 달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는 회생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정하게 되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긴급운영자금(DIP) 일부를 마련한 점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MBK는 전날(2일)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결 기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자금 상황을 요구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K는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3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달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 기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려울 것”이라며 “MBK가 새 인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색하는지가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

했다. 홈플러스 임업 상인들은 이미 손님이 끊긴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서울 홈플러스 월드점점에 입점한 점주 이모씨는 “홈플러스 측이 최근 일부 점포 자영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이달 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1월 매출 정산금을 연기한다고 안내했다. 매장마다 적게는 25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인수자가 없다면 차라리 빨리 파산하는 게 나을 정도”라고 말했다. **노유림 기자**

첨단인력 유치 ‘톱티어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대상 넓힌다

인구감소지역 특화 비자도 신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지역특화형(F-2-R) 외국인 고용 기업은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이 1명 이상이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특성상 내국인 고용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설정한 특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난 21년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 산업의 기업체 인력에 한 한정됐던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로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문대에서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해당 비자는 국내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이른바 ‘K-코어 비자’로 명명했다. 이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비롯됐다.

현행 이민 정책이 사회 통합을 이루 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 위주였던 이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해 보도(1월 12일자 1·4·5면)한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보고서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가 컸다.

김정재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페티오

비엔나 콘도

\$335,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매나사스 콘도

\$200,000

방1/화1
쇼핑몰 근처
New Water Heater & Appliances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PENDING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청와대, 대법관 김민기 제안... 남편이 헌재 재판관 논란

(오영준)

여당이 일방 강행한 4심제 영향 아내가 내린 판결 남편이 맡을수도 대법, 박순영 판사 역제안 인선 갈등 조희대 "사법개혁, 법관 악마화 안돼"

3일 퇴임한 노태우 대법관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 길에 "(청와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양측의 물밑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가 원하는 대법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으로 되려 어려운 입지에 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추진 4명의 후보자 중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첫 대법관은 여성으로 하자"는 명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6기)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관의 저연차화 등을 우려해 1순위에 여성인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2순위 윤석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역제안했다. 법원에서는 "원하는 대로 여성으로 1순위를 제안했는데도 청와대가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 불통이다"는 말이 돈다.

이런 가운데 한 고법판사는 "여당이 강행한 재판소원법 통과로 김 고법판사를 제청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아내가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헌재에 있는 남편이 뒤집을 수 있는 기이한 모양새가 됐다. 법원 내부에선 추후에 설사 오 재판관이 해당 재판 회피신청을 할 수 있더라도 이런 구조 자체를 판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반발이 있다. 또 김 고법판사가 진보성향 법관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도 대법원 제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남은 후보자는 박 고법판사와 윤 부장판사인데 대법원과 청와대 간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양측이 합의를 보더라도 복잡한 계산식을 풀어야 한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으로 중앙선관위위원이 됐다.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선관위에 대법관이 2명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이 노태우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에 내정했기 때문이다. 관례에 따르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이 맡아왔다.

선관위법 등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대법관과 선관위원 병행시 업무 과중 등을 고려했을 때 박 고법판사가 선관위위원에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법원 내부 의견이다. 이 경우 조 대법원장이 선관위원을 새로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속해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게 된 점이 변수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고법판사는 "윤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추천해 해당 재판부에 새롭게 사람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 제비뽑기가 아니라 꼭 집어 보낼 수밖에 없다"며 "또다른 시비가 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범외국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을 통과시킨 점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 때문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궤멸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은 3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며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김보름·최서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국민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이 대통령 "한·필리핀, 신규 원전·광물 협력 MOU"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금 도금 거북선·항공점퍼 선물

3일 필리핀 마닐라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가타당성 조사 결과와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탄 원전은 필리핀에 있는 유일한 원전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여파 등으로 1980년대 중반 공사가 중단됐는데, 필리핀은 올해 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MOU에 따라, 양국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선물한 항공점퍼와 거북선 모형. [사진 청와대]

은 기존 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필리핀의 신규 원전 도입 과정 등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게 됐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반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2차 전지 주 원료인 니켈의 세계 2위 생산국이다.

양국은 이날 원전, 광물, 경찰 협력

등 총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 와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다"고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음식이 필리핀에서 매우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금도금 거북선 모형과 한국 공군 조종사의 항공 점퍼를 선물했다.

항공 점퍼는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꾼 마르코스 대통령이 영화 '탑건'을 좋아하는 데서 착안했다고 한다. 또 점퍼 오른팔의 '3377' 패치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49년 3월 3일부터 정확히 77년이 되는 날 양 정상 이 만남을 기념했다.

윤성민 기자

국힘 "사법파괴 3법, 독재 시작"...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장외 여론전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사법 3법'(범외국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이 통과된 지 나흘째인 3일 거리로 뛰쳐나와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께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신촌,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

린 출정식에서 "애국시민 여러분, 자유와 동지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기어 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3법은 결국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장기독재의 꿈을 버리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끊이지 않는 당내 분열을 의식한 듯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헌정수호라는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이 바라는 건 당 대표 중심으로 뭉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제가 맨 앞에 서서 싸우겠다. 싸워 이기겠다. 여러분이 지켜달라 하시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헌 정권이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장악한 채 입법부 힘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독재가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막을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호소했다.

의원 80여명과 원내 당협위원장 50여명 등 참석자는 "사법파괴 3법을 대통령은 거부하라", "자유민주 대한민국

사법독립 수호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 출정식을 찾은 일부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새긴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윤 어게인', '이재명 재판 속개'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내보이며 "윤어게인 버리면 지신 다 패합니다", "지신 승리 방법은 오직 윤어게인" 등을 외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가슴에는 검은색 '사법부 독립' 리본을 달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내란 유죄 선고 이튿날이던 지난달 20일에도 검은 넥타이를 댔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정승욱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김영선
연방세무사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당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AI 세상 온다” 전공 바뀌 창업, 200개 기업 거래 CEO 됐다

(기계공학→AI)

(황현태 스페이스와이 대표)

“AI 이길 수 없다” 커제 눈물에 충격
원자력원 인공지능실 만든 연구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설립한 중공업사관학교를 1기로 입학했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취업이 약속되는 탄탄대로 코스였다. 열여덟살 고졸 공채 입사 후 선박 설비 부서 등에서 꼬박 4년을 근무했다.

그러나 그날, 정확히 2016년 3월 9일 인생의 향로를 틀었다. TV 화면 속에 펼쳐진 이세돌 9단과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보면서다. 당시 22세이던 유도진(32)씨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웬지 모를 짜릿함을 느꼈다. ‘앞으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이듬해 사표를 썼다. 2년간 독학으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 명지대 융합소프트웨어학부 19학번 신입생이 됐다. 유씨는 “소프트웨어가 만들 임팩트의 크기가 커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4년 동안 충분히 공부해 보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몇몇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유씨는 2024년 말 핀테크 스타트업 토스에 입사해 신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그 대국을 보지 않았다면 조선소를 그대로 다녔을지, 거기서도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했을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며 “소프트웨어 업계도 10년 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계라고 생각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9일로 인간 최고수와 AI가 바둑으로 맞대결을 펼친 지 10년이 된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는 알파고가 이 9단을 4승1패로 꺾은 뒤 “우리는 달에 착륙했다”며 감격했다. 그 충격과는 곧장 바둑계를 집어삼켰다. 발 빠르게 AI의 수를 학습하며 공존을 택한 프로 기사들이 상위랭킹을 점령했다. 그런데 바둑계 바둑계만이 아니었다. 인간 대 AI의 대국을 지켜보던 유씨와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도 전환점이 찾아왔다. 직장과 전공을 바꿔 새로운 도전에 나선 ‘알파고 키즈’ 이야기다.

기업 대상으로 AI 전환(AI) 솔루션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와이(33) 대표는 10년

전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시절 알파고 대국을 지켜보며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관련 논문·자료 등을 다 찾아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인 ‘DQN’ 강화학습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DQN은 공으로 벽돌깨기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수록 좋은 점수를 낼 전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스스로 전략을 짜는 AI는 황 대표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다. AI 석학들의 논문을 번역해가며 주경야독으로 공부했다. 2019년 그는 답리닝 모델을 디버깅(오류를 찾아 해결)하는 방법론에 대해 박사 논문을 썼다. 전공을 아예 바꿨고, 바뀐 전공은 창업으로 이어졌다. 현재 스페이스와이는 SK텔레콤·CJ·삼양 등 대기업을 포함해 200여 개 기업과 AX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황 대표는 “알파고가 아니었다면, 아마 졸업 후 큰 목표 없이 기계공학 포닥(박사후연구원)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알파고 키즈들의 예상대로 10년 뒤 사회 곳곳에는 AI가 깊숙이 들어왔다. HR 테크 기업 윈티드랩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IT 기업 직장인 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6.5%가 “업무에 AI 도구를 거의 매일 사용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3%는 “생성 AI 등장 이후 자신의 직무에 매우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고 답했다. 2026년 사람들은 ‘알파고 쇼크’ 때와는 또 다른, 일과 일상의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원자로 설계 전문가인 유용균(48)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연구실장은 이세돌-알파고 대국 1년 뒤인 2017년 알파고에 패배한 커제 9단이 “이길 방법이 안 떠오른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 확신한 그는 퇴근 후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며 AI를 공부했다.

동료들에게 정보를 공유했고, ‘AI를 원자력 분야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것 같으니 우리도 도입해보자’는 취지로 원장에게 편지도 썼다. 덕분에 원자력연구원에는 2020년 인공지능응용연구실이 신설됐고 그는 지금까지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유 실장은 또 ‘AI 프렌즈학회’라는 이름의 대덕특구 AI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자신의 일을 AI로 꾸준히 확장시키고 있다.

이제현(47)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X 실장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3D 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었다. 알파고 대국 이후 사내에 ‘AI 붐’이 일었고, 모든 팀이 AI 도입 경쟁에 나섰다. 이 실장의 팀

은 당시 머신러닝을 공부 중이던 팀원들 덕분에 좋은 성과를 냈고, 회사는 AI 파트를 신설해 이 실장과 팀원들에게 맡겼다.

어찌다 만들어진 AI 커리어 밭천을 탄탄히 하고 싶었던 이 실장은 2018년 KIST로 자리를 옮겨 실무자로서 AI 도입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AI를 공부하면서 AI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을 깨달아 연구원에 있던 논문 데이터 정리 업무부터 진행했다”며 “2022년 챗GPT라는 강력한 도구가 나오면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폭은 더 넓어졌다”고 했다.

지난 10년간 변화는 알파고 키즈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다. 황 대표는 2019년 박사 논문 초록에 ‘AI가 사업 레벨에 적용된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었던 일화를 들려주며 “2020년대 이후 패러다임이 ‘인식’에서 ‘생성’으로 바뀌면서 발전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고 말했다.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AI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의 정도는 알파고 키즈 전후 세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며 “사회와 직업이 요구하는 스킬셋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상자·김민정·권유진 기자



이세돌



유도진

대우조선해양에서 선박선실구역 설비/공조설계 업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서버 개발자, 신사업 개발 등 업무



유용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소형원자로 설계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실장, AI 커뮤니티 ‘시프렌즈학회’ 대표



이제현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3D 모델링 업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X 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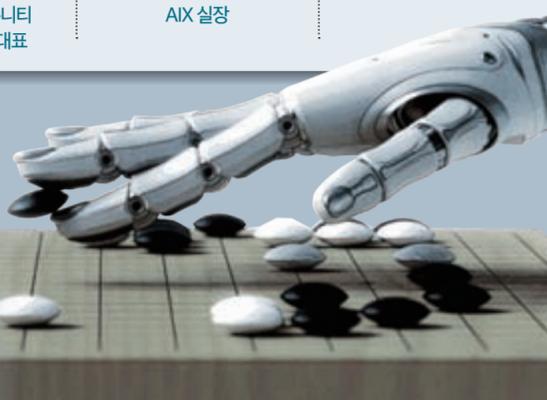
황현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기업 대상 AX 스타트업 ‘스페이스와이’ 대표

※가나다순

AI 시대 앞당긴 주요 전환점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거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SALE	\$1.25M	로라기 Hampton of McLean 에서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에이전트라고 소문이 나서 본인 침도 끌어들이고 연락 중. 2/21 (토) - 2/22 (일) 오후 1:00 - 4:00, 오픈하우스 예정
주거	6501 Divine St, McLean, VA	COMING SOON	\$2.825M	Focal Point Homes 빌다가 지은 5년 된 집, 주인 사랑과 잘 관리된 집, 방 7, 화 6.5,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3/7 (토) - 3/8 (일) 오후 1:00 - 4:00, 오픈하우스
매매 및 렌트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UNDER CONTRACT	\$1.25M	마켓에 나온 주말 바로 계약 완료, 셀러 + 바이어 So Happy
매매 및 렌트	1808 Old Meadow Dr, McLean, VA	UNDER CONTRACT	SALE	마켓에 나오자마자 높은 경쟁을 뚫고 계약완료, 바이어 So Happy, 셀러측 에이전트와의 발령이 신의 한수였음. 2/24 세팅먼트 예정
매매 및 렌트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SOLD	\$689,000	집 사자마자 공실 없이 세입자 연결
매매 및 렌트	8110 Squirrel Run Rd, Springfield, VA	SOLD	\$625,000	셀러가 원하는 조건으로 팔. 45일 무료 Rent Back은 보너스.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Seller So Happy. 11/24 세팅먼트 완료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DC 내 위치 좋은 장사 잘 되는 곳이나온뒤 예정 사업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른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갤럭시부동산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2월 ~ 5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004 Eastern Red Cedar Ln, McLean, VA	NEW	바로 입주 가능 \$6,000 방 3 화 3+1, 집 전체 마루, 맥클린 공동학교/다운타운 글러블 수 있는 거리.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NEW	바로 입주 가능 \$5,500 집 전체 업그레이드 된 차고 1 터운 홈, 방 3, 화 3+1, 가벽 없음, 롱벨로우 중/맥클린 고등
4126 Timber Log Way, Fairfax, VA, 22030	NEW	3/1 입주 가능 \$2,400 방 2, 화 1, 지하에는 2층 터운 홈, 넓은 집, End Unit, 주변 안전 관리, Willow Spring ES
1802 Pollard Terrace, Vienna, VA	NEW	RENTED
8872 Ashgrove House Ln, Vienna, VA	NEW	RENTED
8540 Harvest Oak Dr, Vienna, VA	NEW	RENTED
6518 Alexis Ln, Springfield, VA	RENTED	주재원 (2+2년) 사랑하는 우리 고민 (28개월 정기렌트) 크레딧 좋은 세입자 렌트 완료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주해 중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에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패어팩스티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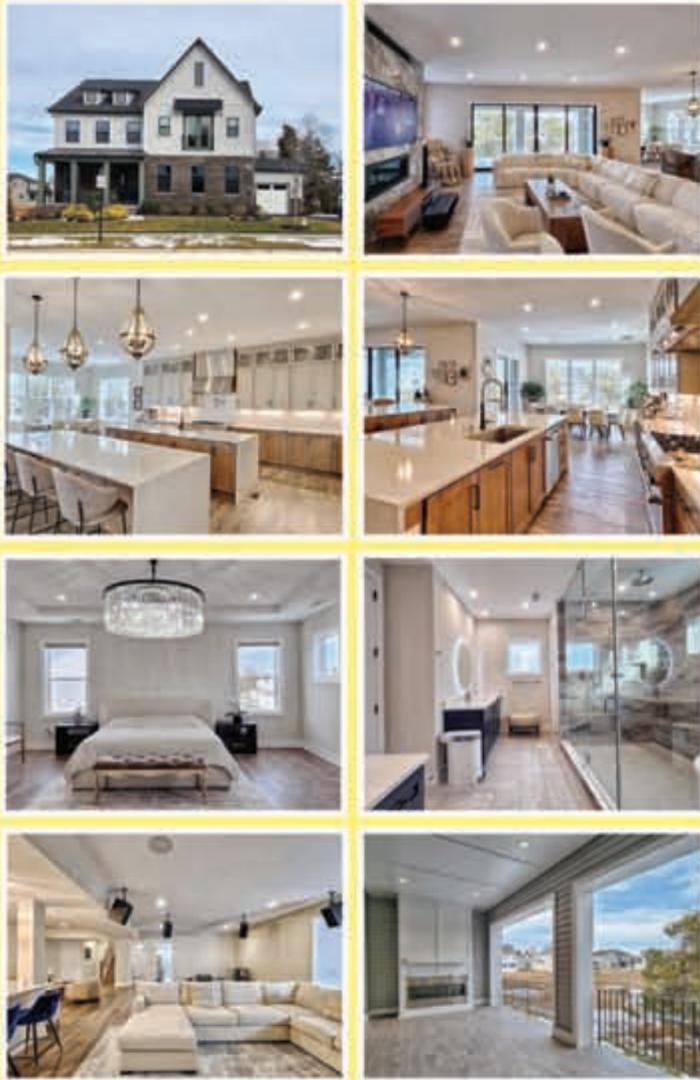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독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1/2,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안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한 타운홈, 1-2-3층 구조,
리노베이트한 부엌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SS Appliances),
새로 꾸민 화장실들, 방3, 화2 1/2, 밝고 환한 집

\$449,900



독점 Burke 싱글홈

방4, 화3 1/2, 2 Car Garage,
집 전체 리모델링, 새 지붕, 새 HVAC 시스템,
새 창문, 새 DECK, 새로 단장한 고급 부엌,
모든 화장실 업데이트

\$975,000



독점 Herndon 콘도

방2, 화2, 예쁘게 새로 단장한 콘도, 맨 윗층
새로 꾸민 화장실들,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한 부엌,
새 페인트, 새 조명과 전등, (New Cabinet, Granite Countertop,
새 주방용구), 교통 편리, 밝고 환한 콘도

\$31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우리말 바꾸기

‘머지않다’, ‘멀지않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언론에서는 AI와 관련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모든 인간의 시력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I가 멀지 않은 미래에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등과 같은 기사를 접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머지않다’와 ‘멀지않다’가 혼재돼 쓰이는 걸 종종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각각의 단어는 띄어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멀지않다’가 바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미래’를 의미할 때는 ‘머지않다’로 써야 바르다.

‘머지않다’는 주로 ‘머지않은’ ‘머지않아’ 등과 같이 활용돼 쓰인다.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돼 있는 합성어이므로, ‘머지않다’와 같이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써야 한다. 그렇다면 ‘멀지않다’는 틀린 표현으로, 무조건 ‘머지않다’로 고쳐 써야 하는 걸까.

‘멀지않다’를 무조건 ‘머지않다’로 고쳐 써서는 안 된다. ‘멀다’와 ‘않다’를 각각의 독립된 단어로 보고 띄어 쓰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지 않다’는 뜻이 된다. “집과 회사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아 걸어 다닐 만하다” 등과 같이 쓸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다수의 힘,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박철웅
일사회 회장

는 최후의 보루다. 제도 변화의 방향이 권한의 분산인지, 또 다른 형태의 집중인지는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상법 개정 역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한다.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출실의무 확대 등으로 경영 판단에 대한 사후 책임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경쟁의 환경에서 기업의 신속성과 자율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개혁은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노란봉투법 또한 노동권 보호 명분이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노사 관계의 균형은 어느 한쪽의 권리만 강화하여도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여야지, 갈등을 구조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도 그렇다.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다수 의적으로 몰아붙이면 또 다른 편향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정부가 강조해 온 복지 확대와 공공 주도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점검이 필요하다. 취약 계층 보호는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과 세대 간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곤란하다. 문제는 정책의 선의가 아니라, 그 선의가 권력 집중 구조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다.

미주 한인들은 권력 분산과 견제의 원리를 일상적으로 경험한다. 미국의 행정부·의회·사법부는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를 통제한다. 제도의 신뢰는 바로 그 균형에서 나온다. 어느 한 기관도 절대적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

모국의 변화는 해외 동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 변화와 같은 구조 변화는 국가 신뢰도와 투자 환경, 재외동포의 위상과도 직결된다.

이는 특정 진영에 대한 지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주목하는 것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개혁이 권력을 나누는 방향인지, 모으는 방향인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입법 과정에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가, 시장과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고 있는가.

선거는 권력을 위임하지만, 헌법은 그 권력을 제한한다. 다수의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 미주 한인 사회가 깨어 있는 시선으로 이를 지켜볼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J네트워크

복잡한 미국의 ‘승리 방정식’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전문기자

중동의 사막이 불바다로 덮였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다. 미국·이스라엘은 이란의 지휘·통제·통신 노드, 핵·미사일 시설, 군사 기지를 쉽게 매섭게 때리고 있다. 이란은 미사일·드론으로 이스라엘과 미군이 주둔한 중동 국가를 타격하고 있다. 한 방 맞은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요르단은 복수를 다짐했다.

지금까지 미군의 피해는 사망 4명, 부상 5명. 반면 이란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휘부 48명이 궤멸했다. 이란의 미사일·드론은 거의 격추됐다. 이란은 약에 반체도 미국을 꺾을 순 없다. 벌써 미국의 신속하고, 압도적 승전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 이기더라도 신속하지 않을 수 있고, 압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란의 승리 방정식은 간단하다. 시아파 성직자와 혁명수비대(IRGC)의 신정(神政) 체제가 살아남으면 그게 끝이다.

미국의 승리 방정식은 복잡하다. 미국은 이란의 핵·미사일·외부(후타·헤즈볼라·하마스 등) 지원 포기와 정권 교체를 노린다. 정권 교체는 핵·미사일·외부 지원 포기의 필요조건일 가능성이 크다.

정권을 교체하려면 지상전이 필수인데, 미국은 이를 꺼린다. 이란 체제는 민중 봉기로 깨뜨린 아직 단단하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때 이라크의 쿠르드족을 부추겼다가, 나중에 배신한 적 있다.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란 정권은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 없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킨다면 끝까지

지 항전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이란을 꺾고 싶어한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압박해 무역에서 많이 얻어내는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지난해 전쟁 때 이스라엘까지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잃었지만, 이웃 중동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은 건재하다. 미국·이스라엘은 당시 써버린 방공 미사일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다.

전쟁이 길어지면 희생자가 늘어난다. 호르무즈 해협이 오래 막히면 유가가 치솟고, 당달아 물가도 쾀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장기전에 취약한 싸움이다.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다. 다만 어떻게 종료하는가가 불분명한, ‘열린 결말’이라서 문제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2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하면서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고 말했다.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1. 센터빌 타운 SOLD \$650,000 방3, 화2.5, 차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	4. 스티어링 타운 SOLD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	7. 애쉬번 뉴타운 55+ SOLD \$790,000 방3, 화3.5, 차고2, Elevator
2. 애쉬번 타운 SOLD \$660,000 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교, RT 267/7, 달라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은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하이 마켓 싱글 \$1,699,000 Under Contract 1메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룸,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3. 맥클린 콘도 SOLD \$38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 2. 메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9. 알디 싱글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곳간디선,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백성호 CPA, MBA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매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 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매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법외곡죄는 K법치의 수치…대통령의 재의요구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3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법을 잘못 적용하는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외곡죄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판 소원제를 각각 도입하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들이다. 특히 법외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놓고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재 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사법 3법 처리와 국민통합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법외곡죄 도입과 관련해 “대한민국 법치의 수치이며 국격에 맞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3법 처리가 지난달 28일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법, 다수의 손에 무너질 수 있어

-사법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냐.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토대지만 전부는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수결로 세워진 헌법이 다수의 손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역사가 보여준다. 그래서 헌법은 다수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절제와 관용, 자제를 요구한다. 헌법의 핵심은 국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참여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라는 데 있다.”

-사법 3법 자체에 대한 생각은.
“사법개혁의 큰 틀 자체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다만 이번 사안은 ‘지금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에게 널리 이해시키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과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 변혁’처럼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의 법안 처리가 일방주의로 흐른다는 지적이 있다.
“법안 처리 중에는 실용주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상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수결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심오한 헌법적 관점, 즉 다수결의 절제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이번 과정은 자제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통합위원장이로서가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다.”

-다수의 자제를 보기 어려운데.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보다 세상의 변화를 자기 생애에 이룩하겠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 않나. 어떤 강박 관념에 의해서 국민을 상대로 마치 줄다리기를 해서 이기는 것처럼 이겨야 우리가 힘 있는 걸 보여준다는 식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

-법외곡죄에 대해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문명국의 수치’라고까지 말하며 반대사를 표명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안 어울리는 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일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을 때 나는 이를 ‘K법치’라고 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일을 방문했을 때도 이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하지만 법외곡죄는 K법치의 수치다. 이제 수사나 재판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고소하고 고발할 것이고 재판소원보다 더 많은 문체점이 야기될 것이다.”

-민주당이 최종안에서 법외곡죄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는데.
“그렇다고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성 원칙이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 같은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다. 법관은 헌법 103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해석 행위다. 해석에는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판사들은 방어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

-외국에도 법외곡죄가 있다는데.
“독일은 150여년 전 프로이센이 통일한 독일제국 시절에 이 조항이 들어갔다. 여기에 나치를 겪은 역사적 경험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것을 새로 도입하는 선진국이 어디 있다. 독일도 실제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고소·고발이 많다. 큰 걱정이다. 대통령께서 법외곡죄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셨으면 한다.”

-재판소원은 헌법 101조(대법원이 최종심)와 충돌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다.
“재판소원이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헌법 101조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소원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재판소원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낳는다. 이것은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심으로 봐야 한다. 현재는 법령 해석 기관이 아니라 최종적 헌법 해석 기관이다. 따라서 범위를 엄격



지난달 27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법 3법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여당 공소취소 모임은 과잉 충성 야당도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대통령의 수난사 반복 안 돼야
민심 전달하며 통합 노력할 것

히 한정해야 한다. 첫째, 위험적인 법률을 적용했는가. 둘째,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간과했는가. 이 두 범위로 제한하면 남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에 그칠 것이다.”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타당했나.
“한정위헌(특정한 법 적용만 위헌)을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오래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저도 헌재 근무 시절 토론에 나가기도 했다. 법외곡죄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 증원법과 헌법심(재판소원)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절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아쉬운 일이다.”

재판소원 아닌 헌법심, 범위 제한해야
-재판소원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안이 통과됐지만 헌법심의 관점에서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현재와 대법원이 대상을 놓고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대법관 증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도 사건 폭주와 대법관 부족으로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는 사건이 많다.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경우 70%에 이른다. 대

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3년에 걸쳐서 매년 4명씩 12명을 증원하는 것은 과하다. 매년이 아니라 2-3년마다 증원해서 8명 정도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찰청이 폐지돼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는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가 아직 논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권력 분산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책임 구조가 분산되면 실패 책임을 서로 전가할 수도 있다.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헌법적 논란이 많은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어떻게 봐야 하나.
“야당에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하고 법원의 시혜적 조치로 재판이 중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위한 조항이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는 물론이고 재판도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

-여당에선 공소취소 모임이 생겼다.

“용어부터 생소하다. 이런 모임은 과잉 충성이고 대통령께도 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여당 의원들이 저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철학으로 통합의 정치를 해서 성과를 낸다면 퇴임 후에 국민이 이런 부분을 평가해 줄 것이다.”

-내란·외환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논의는 어떻게 보나.
“현재 논의되는 방안을 보면 내란·외환 범죄는 원칙적으로 사면하지 않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게 돼 있다. 이것은 전면 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통제 장치들 둔 것이다. 본질적 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반성이 없다. 내란 범죄에 대해 진정 반성이 없는 경우 사면은 신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 중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오히려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대통령 권한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다면.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본다. 헌법적 실용주의를 택한 결과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최고권력자가 되면 점차 주변에서 불편한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측근에 둘러싸이기 쉽다. 확실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수난사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소신으로 대통령에 대한 나의 진언은 계속될 것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하지 않던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
“정치 양극화와 진영 논리, 사회 갈등과 분열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이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선 정부와 민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한다. 때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한쪽의 비난과 정찬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소신에 입각해 통합 행보를 계속해 나가려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야당도 역할을 해야 할텐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 단식 현상도 방문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보수의 참정신을 찾아 건전한 중도보수세력을 규합하여 보수를 재건해 달라 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판결 후의 행보를 보고 크게 놀랐다. 안타까운 일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대미투자특별법, 네 탓 공방 멈추고 초당적으로 처리하라

경제 6단체가 어제 국회를 향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긴급 호소문을 냈다. “입법 지연은 대미 협상력 약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엔 절박감이 묻어났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조분확실성 시대’의 통상 환경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치권이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경제계가 긴급 호소문을 낸 어제든 여야의 우선순위는 ‘사법 3법’에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사칭한 독재”라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장외 투쟁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여야 모두 시급하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네 탓”이라는 주장에 치중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비위를 맞추면서도 국익을 등한시했다는 책임을 면하려는 정략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1500억 달러의 조

협력 투자를 위해 기구와 체계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4일 대미투자특위를 재가동해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려면 입법 지연이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때문이라는 야당 책임론은 그만 접어야 한다. 그렇게 시급했으면 사법 3법에 앞서 처리했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다른 쟁점에서의 협치로 이어가는 실마리로 활용해야 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다. 누구 탓이 더 크다고 한들, 훼손된 국익은 회복되지 않는다. 입법 지연이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됐고,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새로운 관세 후폭풍이 예고된 현실을 여야가 함께 직시해야 한다.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언제든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엄살이 아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려되는 주한미군 중동 차출...대북 대비태세 이상 없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이 장기화할 경우 주한미군 장비와 병력이 중동에 차출(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2일)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군은)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덴 케인 미 합참의장도 “군사 목표 달성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 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란을 상대로 한 ‘12일 전쟁’ 당시에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중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패트리엇·사드(THAAD) 등 방공 자산, MQ-9 ‘리퍼’ 다목적 무인기 등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군은 이란의 미사일·드론 보복 공격을 일부 막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란이 중동에 산재한 미군기지와 걸프 국가의 에너지 시설까지 공격함에 따라 미군의 방공 무기 수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엘브

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그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통화해 중동 상황을 공유했는데,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차출 이슈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협력이 진행 중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전쟁’ 종료 후에는 패트리엇 포대가 한국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에 하나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 붕괴”까지 위협하고, 한·미 연합훈련 실기동훈련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주한미군 전력도 차출된다면 이는 커다란 안보 우려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차출에 앞서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주한미군 전력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35년까지 증액된 국방예산을 활용해 한국형 방어체계(KAMD) 등 3축 체계 구축을 서두르는 등 대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정부가 어제(3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국회로 이송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수사과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대신할 기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접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 경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과거 검찰청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논리다. 반면에 범주계에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공소 유지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검찰 개혁은 어느 한 기관의 축소나 확대가 목표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얽매어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거르지 못해선 안 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공소청 검사의 자의적 권한 행사 소지는 다른 방식으로 엄정하게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앞으로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도움되는지를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돼야 국민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엔트로픽 계약 해지의 나비효과



안혜리의 시사각각
時 視 各 角

난해 7월 엔트로픽뿐 아니라 오픈 AI·구글·xAI와도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핵심 분석 도구로 써 온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기밀 군사 네트워크는 클라우드가 유일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엔트로픽이 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자마자 이 공백을 틈타 경쟁사 오픈 AI가 미 국방부와 새 계약을 체결해도 소용없었다. 트럼프 정부로선 오픈 AI가 실전에 투입될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쉽게 말해, 트럼프가 아무리 엄포를 놓고 협박해도 지금 현재 미국의 최첨단 군사작전은 클라우드 없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는 얘기다. 정부와 민간 기업 간 첨단 기술 주도권 다툼이란 시각에서 볼 때, 민간 AI 기업의 원칙이 정부 정책보다 현실에서 더 강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얘기가기도 하다.

낙관론을 믿고 뒤늦게 영끌해 상승장에 베팅한 주식이 어제(3일) 7% 넘게 속절없이 주저앉았다. 두바이를 경유해 유럽에 가려던 여행 계획은 두바이공항 운항 중단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전부 내 삶과 무관한 줄 알았던 저 먼 나라 이란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작전(미군의 ‘장대한 분노’) 후폭풍 탓에 평범한 한국인이 지금 겪는 일들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 금융시장은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고, 막혔던 두바이·도하 등 중동 허브도 다시 열릴 거다. 다만 시간을 보낸다고 거저 해결되지 않을 더 어려운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란 공습 전후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 간의 갈등 국면에서 새삼 불거진 AI 관련 안보 종속 우려다. 한국과 무관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 간 충돌이라고 치부해선 안 된다. ‘장대한 분노’ 작전이 우리 국민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만큼 결국 모두의 삶에 얽혀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 출신 다리오 아모데이가 만든 자국 AI 기업 엔트로픽을 화웨이 같은 중국·러시아 적성국 기업이나 적용하던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하고, 모든 연방 기관에 즉각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지난해 7월 엔트로픽이 국방부와 맺은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때 미 특수부대가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활용해 표적 식별과 전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측면에서 재미를 봐놓고는, 엔트로픽이 “자국민 감시와 완전 자율무기는 양심을 넘어선다”고 원칙을 고수하자 이런 극약 처방을 내린 거다.

자국 기업에 대한 이런 극단적 제재도 유례없는데, 불과 몇 시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의 금지 명령 와중에 클라우드를 활용해 ‘장대한 분노’ 군사 작전을 감행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

전 세계 국가 절반에 무기를 파는 막강한 군사력의 미국조차 이렇진대 한국을

추가 급락에다 해외 여행길 막혀 먼 이란 공습, 내 삶과 밀접 연결 정부보다 센 AI 기업 준비돼 있나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장 미국에선 ‘민간 기업의 상품 약관(원칙)이 군사주권을 우선할 수 있는 가’라는 논란이 터져나왔다.

정반대의 시사점도 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미 방산기업과 깊게 협업하고 있는 세계 10위권 무기 수출국이지만, 그 걸 어디에 어떻게 쓸지 판단하는 머리는 없어 미국 민간 AI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도 우려스러운데, 이번 엔트로픽의 공급망 배제처럼 한국이 의존하는 외국 AI 기업이 자국 정부와의 정책 충돌로 하루아침에 공급망에서 배제돼 버리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외국 AI 의존이 안보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원칙을 위해 당장의 큰 손실을 감수한 엔트로픽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르겠지만,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소버린 AI 없이 안보를 지킬 수 있나. 그걸 구축한 민간 기업이 정부를 압도할 때 어떤 선택이 있나.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1차) 제1차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인쇄(제1차)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방지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빌딩 3층

단연 최고의 신문!! 중앙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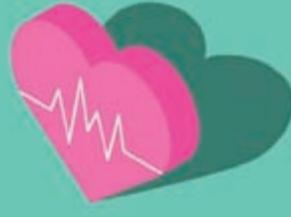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정성웅 보험



Term Life

정성웅 보험



생명 보험은 단순 비교 만으로는
각 보험사의 특징과 저렴한 보험료를
찾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저희가,
5개 보험회사의 7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중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시도록 비교해 드립니다!

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2.67	\$17.31	\$39.52	\$108.50	
20 yr.	\$18.16	\$28.04	\$69.00	\$199.53	

Fe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0.56	\$15.14	\$32.49	\$72.14	
20 yr.	\$15.63	\$23.79	\$54.14	\$139.62	

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6.05	\$21.54	\$49.84	\$127.62	
20 yr.	\$23.23	\$34.64	\$82.62	\$224.37	

Female (Preferred Best)		\$500,000			
	30세	40세	50세	60세	
10 yr.	\$13.34	\$19.40	\$41.64	\$91.69	
20 yr.	\$18.16	\$28.73	\$64.11	\$160.22	

*상기 보험료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경제적 안전망입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정성웅 생명 보험

알려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영어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직원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 드리며, 더욱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딱 좋은 보험을 찾아 드리는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건강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평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내 몸 혈액 15%는 '비상용'... 헌혈해도 건강에 지장 없어요

헌혈 260만 건- 코로나 이전보다 줄어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 헌혈 받은 혈액 또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데, 적혈구는 약 35일, 혈소판은 약 5일 정도 지나면 수혈용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러한 유한성 때문에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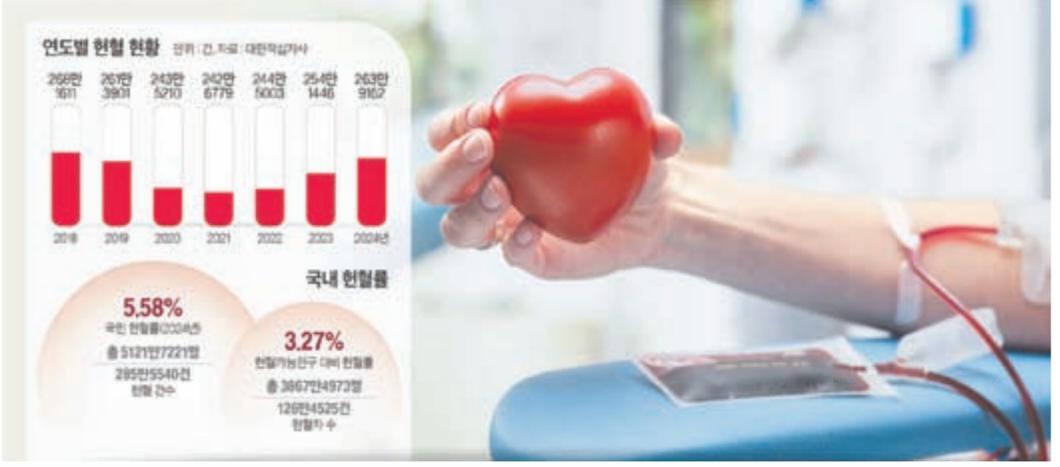
특히 겨울철은 감기·독감, 기온 저하 등으로 헌혈에 부적합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져 헌혈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다. 반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는 계절과 상관없이 꾸준하다. 교통사고 환자, 암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등 많은 환자들이 혈액 공급이 원활해야 치료를 이어갈 수 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발간한 2024년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헌혈 건수는 약 260여만 건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적은 수다. 전체 인구 대비 헌혈 참여율은 5.58%로 집계됐고, 이중 헌혈자 실인원은 약 126만4525명으로 1인당 평균 헌혈 횟수는 2.26회였다.

또한 16~69세 헌혈가능 인구 중 실제 국민 헌혈률은 3.27%였다. 인구 구성의 변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헌혈 가능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은 혈액 공급의 장기적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통계를 보면 연령별 헌혈 비중에서 20대가 약 3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0대(16~19세)도 19.3%로 뒤를 이었다. 젊은층이 활발히 참여하는 듯하지만, 같은 연령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로 10대와 20대 헌혈자 수는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헌혈을 주저하는 이유는 어



헌혈 받은 혈액 장기 보관 불가능
적혈구는 35일, 혈소판은 5일 정도
겨울엔 감기 등 헌혈 부적합자 늘어
건강·생명 나누는 작은 실천 더 절실

면 것들이 있을까? 우선 “헌혈하면 빈혈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걱정들이 많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자는 체중의 8%, 여자는 7% 정도로 체중이 60kg인 남자의 혈액량은 약 4800mL, 50kg인 여자는 3500mL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체내에서 전체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보통 헌혈 헌혈은 320~400mL가 채혈되며 헌혈 후 1~2일 정도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혈액 순환이 회복된다.

또한 헌혈자 건강 보호를 위해 헌혈 전 빈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빈혈 예방을 위해 헌혈 간격과 헌혈 가능 횟

수 기준을 정해 과도한 헌혈참여를 예방하고 있으므로 헌혈로 인해 빈혈에 생기는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헌혈을 원하는 경우 헌혈 전 아래와 같은 다양한 건강 체크가 이루어진다. 우선 ①몸무게·혈압·맥박·체온 측정이다. 남자 50kg 및 여자 45kg 미만, 혈압은 수축기 혈압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 이완기 혈압 100mmHg 이상, 맥박은 1분간 50회 미만이나 100회 초과, 체온 37.5도 초과 시 헌혈이 제한된다. ②첫 헌혈자인 경우 혈액형 검사도 한다. 채혈현장에서는 A·B·O·AB형에 대한 혈구형 검사만 실시하고, 헌혈 후에 검사센터에서 혈구형, 혈청형 등 자세한 검사를 실시한다. ③빈혈검사도 이뤄진다. 헤마토키트가 성분헌혈은 12.0g/dL 이상인 경우, 전혈 헌혈은 12.5g/dL 이상인 경우 헌혈이 가능하다. ④ 혈소판 수도 측정한다. 혈소판 수가 15만 개/μL 이상일 경우 혈소판 성분헌혈이 가능하다. ⑤문진도 한다. 헌혈자의 헌혈관련 증상 발생을 예방하고 수혈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며 문진간호사가 헌혈자가 작성한 헌혈기록카드를 확인

하여 헌혈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혈액·체온·혈소판 수까지 체크 후 진행

헌혈 재참여를 원하는 경우 전혈을 하였을 경우 8주 후, 성분헌혈을 하였을 경우 2주 후 같은 요일부터 다음 헌혈이 가능하다.

단, 과거 1년 이내에 전혈헌혈 횟수가 5회이면 전혈헌혈이 제한되며, 과거 1년 이내에 성분헌혈 횟수가 24회일 경우 혈소판 성분헌혈, 혈소판 혈장 성분헌혈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사항과 규정을 통해 헌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헌혈 참여는 작은 선택일 수 있지만 간절한 환자에게는 생명을 이어가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헌혈은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생리적 재생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생명 나눔이다.

첫 걸음을 떼기 어려울 순 있으나 누군가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자.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직접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Primary Care & Urgent Care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교통사고 전문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편두통, 경부통,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근섬유통 등)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
- 구안와사 (안면마비)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등), 순환장애, 수족냉증
-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증상,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 ADHD (과잉행동장애), PTSD (외상후 증후군)
- 수술후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 국의대사(国医大师)
- 연정화(颜正华)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석사, 박사
- 임상 26년 경험

한국산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WWW.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전화 예약환자에 한함

건국대병원과 함께하는 희귀 난치질환 희망 동행 최교민 신경과 교수

“다리 굳어지면, 보행장애 원인·희귀질환 여부 함께 살펴야”

“걷는다는 건 독립적인 삶과 직결되므로 보폭이 이전과 달라지고 걸음이 뻣뻣해졌다 싶으면 미루지 말고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끝까지 좁혀가다 보면 매우 드물지만,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HSP) 같은 희귀병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희귀질환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만나 온 건국대학교병원 신경과 최교민 교수의 당부다. 그는 다리가 굳어지기도 이를 ‘나이 탓, 허리 탓’으로만 버티다 치료 기회를 놓친 환자를 적지 않게 보았다고 한다. 진단이 잘못돼 불필요한 시술, 수술을 반복하며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환자도 드물지 않다.

걷는 동작은 고도의 기능이다. 뇌에서 내려온 신호가 신경 경로를 거쳐 다리에 전달되면 양 다리의 근육과 균형 감각이 적절한 조화를 이뤄야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다. 힘 빠진 걸음, 흔들리는 걸음, 뻣뻣한 걸음의 원인이 각기 다르다. 최 교수는 “HSP 같은 희귀 신경질환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에 앞서 치료되는 원인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교수의 일문일답.

-신경계 문제면 걸음걸이가 어떤가.
“다리에 힘이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다리가 굳는 느낌이 있고 보폭이 좁아지며 자주 넘어진다. 환자가 느끼는 불편, 가족이 지켜본 변화, 의사가 직접 관찰한 보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증상이 수개월, 수년에 걸쳐 진행

하면 한 번쯤은 신경과적 평가가 필요하단 신호다. 소변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의심이 필요하다.”

-희귀질환 진단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

“보행 장애가 있으면 신경과에서는 파킨슨병 같은 운동 질환을 우선 살핀다. 하지만 운동 조절 문제가 아니고 다리 경직이 보행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면 뇌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호 전방에 문제가 있는지 찾는다. 예를 들어 고령에서 흔한 척수(특히 목) 압박, 알코올 중독, 영양소 결핍이나 흡수

희귀병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보행능력 상실까지 평균 30년 넘어 배뇨·낙상 대비해 삶의 질 지켜야

장애로 인한 신경 손상, 척수 혈관 이상이나 염증,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도 보행 장애와 배뇨 장애를 일으킨다. 이런 원인들에 의한 일부 증상은 치료가 된다. 비교적 더 흔한 원인을 하나씩 배제한 뒤 HSP 같은 아주 드문 희귀 신경질환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다.”

-HSP 진단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다리가 점차 뻣뻣해지며 걷지 못하게 되는 희귀병인데 진행 속도가 느리고 초기에는 다른 질환과 구분이 어렵다. 여러 유전자 변이가 비슷한 증상을 만들기 때문에 보행 양상과 신경학적 징후, 장기 경과를 함께 봐야 한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최교민 교수는 “못 걷는다고 포기하거나 희귀질환으로 단정할 게 아니라 치료되는 원인이 숨어 있는지 확인을 거듭하며 찾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하 객원기자

유전자 검사는 충분한 임상 평가 후 필요한 경우에 신중히 실시를 결정한다. HSP라 해도 원인 유전자 변이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대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고 곧바로 환자라는 의미도 아니다. 유전자 변이가 있어

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제가 있는가.
“HSP 같은 희귀 신경질환의 치료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독립 보행 능력

상실까지 30년이 넘는다는 보고가 있다. 30대에 증상이 나타나 70대에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와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완치의 치료제는 없지만, 병의 경과를 이해하고 준비하면 이 긴 기간 동안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소변이 잘 안 나오면 요로 감염을 막는 계획이 필요하고 생활 조절을 논의한다. 진행에 따라 낙상을 예방하는 보조기 사용과 재활 치료를 준비한다. 성격과 인지 기능 변화가 예상되면 외부 도움, 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 같은 사회적 자원 연계까지 고민하는 것이 치료의 일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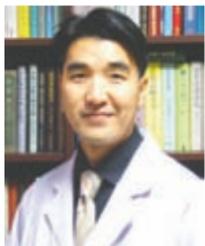
최 교수는 희귀병에 대한 낙인으로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사회 분위기를 우려했다. 유전 질환은 ‘흠’이 아니라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다. 그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쉽게 말하기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훨씬 절절하다. 낙인은 진단과 치료를 주저하게 하고 가족 전체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60대 후반에 HSP 진단을 받은 환자 A씨의 사례다. 그는 오랫동안 증상을 숨이나 생활 습관 탓으로 넘기다 심각한 보행 장애와 배뇨 장애, 인지 저하까지 왔다. HSP 진단 이후 질환이 대물림할 가능성이 큰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 HSP는 생명유리안전법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에 막 결혼한 A씨의 자녀는 충분한 준비 후 임신을 계획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건강칼럼

배가 아파요



한일한의원 원장 연태흠

복부 즉 배는 진단학적으로 9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위아래로 상중하측 윗배, 중간배, 아랫배로 나눈다.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고 할때 윗배가 아파? 아랫배가 아파?라고 물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부위를 다시 왼쪽, 중간, 오른쪽 다시 삼등분 나누면 모두 9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9개 부위의 배 중에서 오늘은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몇군데를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위아래를 상중하로 부르기로

하자. 그럼 상복부 중간을 말하면 가슴에 있는 가운데 뼈 부위의 바로 아래를 이야기하는데, 이곳을 가슴뼈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다. 이는 우리말로 명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을 잘못 맞으면 기절할 정도로 숨도 못쉬고 쓰러지고 만다.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속이 답답할 때 이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는 곳이다. 침

할자리로는 거울상완중완 등이 해당하는데 요즘은 환자분들이 너무 지식이 많아서 한의원에 오셔서 ‘중완에 침 좀 놔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정도다. 그곳 깊숙한 곳엔 위장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곳이 아프다고 꼭 위장에 문제가 있는 것

은 아니다. 심장질환이 있어서 이곳이 아픈 사람들도 있고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곳이 무척 아픈 사람들도 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짝 움켜쥐고 숨쉬기도 힘든 상태까지 오기도 하는데 이런 바로 응급차를 불러야 할 때도 있다. 심근경색이 오면 이 부분과 왼쪽 등쪽에 강한 통증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이곳이 아플 수 있는데 이때는 양쪽 젖꼭지 사이의 가운데 뼈 있는 곳을 살짝 눌렀을때 많이 아프다면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때는 또한 오른쪽 늑골 아래 즉 오른쪽 상복부에 압통이 생기기도 한다. 간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복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자궁이나 난소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대변이 어떤지 생리가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복부 중간인 경우 방광이나 자궁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상 의사도 아닌 독자들에게 진단을 마구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면 당장 병원에 가야하겠지만 가면서 내 증상이 어떠한 부위이고 어떤 증상이 따라오는 지를 알고 의사와 상담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중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흠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현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씨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Chantilly, VA 22003

길고 곱게 살고 싶다면? ... 하루 8000보 빨리 걷기부터 시작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2.7세이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69.9세로 8년 만에 다시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만성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기간은 12.8년이다. '건강 수명'이란 몸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기간, 기대 수명에서 질병을 앓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우리 대부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넘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의미 있는 삶,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

개인마다 유전적 소질과 주어진 사회환경이 다르지만 건강수명을 최적화하는 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오래 살면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을까.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보면 공통으로 강조되는 10가지 생활 습관이 핵심이다.

기대 수명 82.7세, 건강 수명은 69.9세

① **꾸준한 운동**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등도의 유산소 운동(빠르게 걷기, 등산 등) 또는 75분의 고강도 운동(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두 강도의 운동을 적절하게 조합하거나 주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도 같은 효과가 있다. 중강도 신체 활동은 하루 빠른 걸음의 7000~8000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심폐 기능과 근력을 강화하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건강

건강수명 늘리는 10가지 생활습관

과일·채소 하루 500g씩 섭취하고 체질량지수 18.5~23으로 유지
요가·명상하면 심신 안정에 도움
최소 2년마다 국가검진 받아야

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수명 연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심장질환·뇌질환·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서적 안정과 수면의 질을 높이고 근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② **균형 잡힌 식단**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구성한다. 현대인은 채소와 과일 섭취는 부족하고 초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건강 수명을 단축시킨다. 예를 들면, 국민 5명 중의 1명만이 하루 과일 및 채소 섭취량 권장량인 500g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같이 소금·설탕·포화지방이 많은 초가공식품이나 붉은 고기는 덜 먹는 반면 하루 100g의 채소나 과일을 더 먹고 생선이나 견과류,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 섭취를 늘리자.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심뇌혈관

질환·심장병·암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③ **표준 체질량지수 유지** 표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키(m 단위의 제곱)로 나눈 값이다. 건강에 좋은 표준 체질량지수는 18.5~23.0이다. 과체중(BMI 23.0 초과)이거나 비만(BMI 25.0 초과)인 경우 역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④ **충분한 수면** 매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기본이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으면 신체 기능 저하만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 정신 건강 장애와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 멈춤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하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양압 호흡기 처방을 받아 교정하는 것이 좋다.

⑤ **절대 금연** 흡연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습관으로, 수명을 단축하며 폐질환·심뇌혈관질환·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흡연 중이라면 금연 클리닉에서 금연 보조제 등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처방받아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좋다. 건강 수명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적이다.

⑥ **절주** 과도한 음주는 간 질환, 암, 심각한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하며 우울증을 유발한다. 적당한 음주는 주종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남성은 하루 두 잔 이하, 여성은 하루 한 잔 이하를 의미한다.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더 적게 마시거나 마시지 않

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

⑦ **긍정적인 마음** 스트레스는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발해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를 높인다. 코르티솔 수치에 장기간 노출되면 불안·우울증·고혈압·심장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음 챙김, 요가,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⑧ **소중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유지**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끼거나 약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더 크다.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하기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할수록 전반적인 건강이 더 좋다. 친밀한 공동체 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증진하고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줄인다.

가족·친구와 활발한 교류로 정서적 안정을

⑨ **정기적인 검진**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만성질환과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소한 2년마다 혹은 위험 요인에 따라 권하는 정기적인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 혈압·콜레스테롤·혈당·위암·대장암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은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

여성의 경우는 자궁경부암과 유방암 검진을, 장기 흡연자는 폐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 저선량 흉부 단층촬영을 받도록 한다. 금연 후에도 15년간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위험 요인에 따른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⑩ **연령과 위험 요인에 따른 예방 접종** 독감·폐렴·대상포진 등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모두 한다. 연령과 만성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예방접종이 다르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다.

질병이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장수가 아닌, 높은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습관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한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오래 살고 싶다면 꼭 지키세요

- ✓ 주 150분 유산소 + 근력운동
- ✓ 채소·과일 늘리고 가공식품 줄이기
- ✓ BMI 18.5~23 표준체중 유지
- ✓ 하루 7~8시간 질 좋은 수면
- ✓ 담배는 반드시 끊기
- ✓ 음주는 최대한 적게
- ✓ 스트레스는 관리하고 마음은 긍정적으로
- ✓ 가족·친구와 꾸준한 교류
- ✓ 2년마다 정기 건강검진
- ✓ 연령 맞춤 예방접종 완료

“여러분 곁에 워싱턴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신선한 정보!! 세련된 광고!!

대표전화 : 703-281-9660

구독문의(Ext. 1) / 광고문의(Ext. 2) / 편집 및 기사관련(Ext. 3)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말동무 해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룸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 드립니다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최신 유전자 검사도 된대요... 지방 소아혈액암 환자의 미소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지방이라 치료·연구 어려웠는데 이견희 기부금, 거점병원들 지원 전공의 거의 없어 당직서던 교수들 “혁신적 도움, 여기 남아야겠다”

“몇 년 전 학회에 갔더니 발표 논문 20개 중 15개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의 연구였어요. 나머지 병원은 다 합쳐도 5개 될까말까 했을 만큼, 지역 병원은 연구할 여력이 바닥이었어요.”

김지윤 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에게 지난 10여년은 “진료만으로도 버거운 시간”이었다. 김 교수는 “지방은 더 상황이 안 좋았고, 진료·당직도 간신히 버티던 지방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서 병원 간 공동 연구에 참여할 여력은 없었다”고 전했다. 소아혈액암처럼 환자 수가 적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질환은 진료 현장이 버티지 못하면 연구는 더 멀어진다.

국내 소아암 환자 치료·연구는 수도권 쏠림이 심하다. 소아혈액암 환자 중 서울·경기에서 치료받는 비율은 2015년 74%에서 2024년 78.3%로 늘었다.

지역 거점병원이 있어도 최신 유전체 검사, 첨단 치료법을 적용 받으려 수도권을 오가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지역 환자·보호자의 부담은 커지고 치료 기회의 격차는 벌어진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견희 소아암 극복사업 지방 거점병원 지원 사업’이 올해 시동을 걸었다. 고(故) 이견희 회장 유족의 기부금 3000억원을 재원으로, 앞으로 4년간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원해 소아혈액종양에 대한 다기관 임상 연구의 기반을 키운다. 양산부산대병원, 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견희 소아암 극복사업은 전국 소아혈액암 환자에게 전장유전체 분석, 미세잔존암 검사, 다기관 임상연구 등 첨단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를 적용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역 의료기관은 사업 관련 행정 업무, 환자 등록·관리까지 의료진이 맡다 보니 연구 참여가 어려웠다.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임연정 교수는 “1명당 동서서 설명만 30분~1시간이 걸린다. 보고·입력·모니터링까지 업무가 너무 많아 임상 참여가 사실상



김지윤 철곡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19일 어린이병원에서 ‘나의 꿈’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소아암 환자 준비는 유튜브, 아람이는 수의사라는 희망을 그림으로 담아냈다. 송봉근 객원기자

막혔다”고 했다.

사업을 통해 지역 거점병원엔 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준비, 연구 참여 환자·보호자 동의 절차, 상담, 데이터 입력과 보고·관리를 맡을 인력이 지원

된다. 이를 통해 지역 환자도 국제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예후 인자를 파악하는 최신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비도 지원된다. 전국의 환자 데이터도 한데 모을 수 있게 됐다.

현장 반응은 뜨겁다. 김지윤 교수는 “이제껏 없던 혁신적 지원이다. 내가 여기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됐다”며 “최신 치료를 하려면 연구와 진료 모두 중요한데, 이제는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연정 교수도 “2019년 이후 전공의가 거의 없어 교수끼리 당직을 서는 상황이라서 연구할 여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다”라고 했다.

강형진 서울대병원 교수(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담당사업부장)는 “2024년 시작된 복지부의 소아암진료체계 구축 사업으로 지방 진료 기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견희 소아암 극복사업을 통해 첨단 진단과 표준화된 다기관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환자들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진단과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구 방향은 ‘한국 아이들의 데이터 확보’에 달아 있다. 김지윤 교수는 “주로 해외 연구를 바탕으로 치료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특성과 다를 때가 있다. 한국 아이들의 데이터로 치료 가이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예스터 기자

‘몸 밖 심장’ 서린이가 웃었다

희망이 만든 서린이의 기적
시험관 시술 14번만에 찾아온 아기 사망률 90% ‘심장이소증’ 진단받아 아산병원, 가슴 재건수술 최초 성공

가슴뼈와 피부 없이, 심장은 몸 밖에 나온 채 태어난 아기가 여러 분야 전문의들의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기적적으로 병원 문을 나섰다.

17일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초로 ‘심장이소증’을 앓는 신생아의 심장을 흉강(가슴) 안에 넣고 가슴 부위를 배양 피부로 덮는 고난도 재건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적의 주인공은 생후 8개월 박서린양. 심장이 흉곽 안에 위치하지 않고 몸 바깥으로 나와 있는 원인 불명의 선천성 초희귀 질환인 심장이소증을 앓고 태어났다. 100만 명당 5~8명에게 발생하며, 환자의 90% 이상은 출생 전 사망하거나 태어나더라도 72시간을 넘기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병이다.

첫째 출산 뒤 둘째를 간질히 원했던 부모가 3년간 14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가진 아이였다. 기쁨도 잠시, 임신 12주 짜인 지난해 11월 정밀 초음파 검사에서 병이 발견됐다. 첫 진료 병원에서는 “살아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도 3일을 넘기기 힘들니 마음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아산병원을 찾았다.

가장 먼저 만난 아산병원 태아치료센터 이미영 교수(산부인과)는 진료 때마다 정밀 초음파 검사로 심장의 구조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주치의인 소아청소년심장과 백재숙 교수와 소아심장외과 최은석 교수는 치료에 참고할 연구 문헌을 뒤졌고 “끝까지 함께 할 테니 포기하지 말라”며 부모에게 용기를 줬다.

엄마 뱃속에서 38주를 버텨낸 서린이는 지난 4월 10일 태어났다. 아기의 심장은 몸 밖에 노출된 채 튀고 있었다. 가슴뼈·갈비뼈가 없었고, 가슴과 복부의 피부조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흉부가 열려 있었다. 소아청소년심장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최초로 심장이 몸 밖에 나온 채 태어난 심장이소증 신생아 박서린(사진양)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 [사진 서울아산병원]

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소아심장외과, 산부인과, 융합의학과와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치료 방향을 의논했다. 흉강 내 공간을 확보해 심장을 넣은 뒤, 배양시킨 피부를 덮어 흉부를 재건하기로 했다. 몸 밖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 다음 날 인공피부를 덮는 수술을 했다.

이어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세 차례에 걸쳐 심장을 흉강 내에 넣는 수술을 맡았다. 주변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심장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고난도 수술이었다.

최 교수는 간을 아래로 내리며 조금씩 심장을 밀어 넣었고 3번째 수술 만에 심장 전체가 흉강 안쪽에 자리 잡았다. 이어 성형외과 김은기 교수가 서린이의 피부를 소량 떼어 배양한 자기유



래 배양피부를 가슴에 이식했다.

생후 두 달 만에 서린이의 심장은 제 자리를 찾았다.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가 3D 프린팅을 이용해 맞춤형 흉부 보호대를 제작했다. 이 시기부터 재활 의학과 의료진은 재활 치료를 진행했다.

건강을 점차 회복한 서린이는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고, 최근 퇴원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3세쯤 가슴에 단단한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주변을 근피부 조직으로 덮는 수술을 해야 한다. 주치의 백재숙 교수는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영원의 메시지를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예스터 기자

락빌의 건강지킴이

황지연 내과

Jiyon Hwang-Ki MD

www.drhwangki.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황지연 내과와 함께 관리하세요.”

진료 과목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협심증, 해소, 천식, 위궤양, 간염, 알러지검사, 신경통, 관절통 및 신경질환, 갑상선, 종합검진, 각종 예방 주사, 부인과 진료, 수액 주사, 링거 주사

** 메디케어 및 HMO, 각종 일반 보험 취급합니다.
** Amerigroup 받습니다.

Dr. 황지연

연 회원제 주치의 프로그램

1단계 기본 (Essential)

- 연회비: \$1,800 (월 \$150)
- 포함: 연 2회 종합검진 (CBC, CMP, TSH, Lipid, HbA1c, UA, EKG), 원격진료 4회, 약물 검토·처방 갱신, 전문의·병원 연계
- 정기 관리 기본: 6개월마다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4회 예약창 제공

2단계 프리미엄 (Premium)

- 연회비: \$3,000 (월 \$250)
- 포함: 연 4회 종합검진 (동일 항목), 원격진료 8회, 독감백신 1회, 약물 검토·처방 갱신, 분기별 검사/상담, 원격진료 최대 8회, 독감백신 시즌 내 접종, 전문의·병원 연계

등록비: \$250 (1회)

Telehealth 추가비: 포함 회수 초과 시 \$50/회 (사전 고지 후 \$50/회 결제)

연장/갱신: 만료 45일 전 갱신 알림, 30일 전 취소 가능



Jiki Medical Associates, LLC
Internal Medicine

301-610-6630

15200 Shady Grove Rd, Ste 108, Rockville, MD 20850
Fax: 301-610-5431 | Email: jikimedical@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50세 이상 여성 '경제 불안감' 가장 높아

50세 이상 여성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퇴자협회(AARP)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10일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 유권자의 절반은 1년 안에 경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1%에 그쳤다.

또한 50세 이상 여성의 52%는 1년 전보다 현재 재정적으로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 중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모두 2026년 선거에서 50세 이상 여성 표심이 향방을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겨냥한 연설과 광고 전략을 준비할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공화당의 크리스틴 솔티스 앤더슨 여론조사 전문가는 민주당의 마지오 메로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앤더슨은 "젊은 여성은 민주당 성향이 강하고 고령 남성은 공화당 성향이 뚜렷하지만 고령 여성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50세 이상 여성은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의 하나지만 표심이 정하지 않은 집단"이라며 "적절한 메시지와 공약을 내세우면 양당 모두 이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50~64세 여성의 불안감은 두드러졌다. 조사 전반에

서 이 연령대 여성은 65세 이상 여성이나 동년배 남성보다 경제에 대해 더 크게 우려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큰 문제로 생활비 상승을 꼽았다.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자신감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자신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0~64세 여성이 55%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여성은 45%였다. 남성은 이보다 낮아서 50~64세 남성은 43%, 65세 이상 남성은 27%였다.

50~64세 여성은 X세대 후반과 베이비붐 세대 초반이 혼재된 집단으로 특이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앤더슨은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 18세 미만 자녀나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를 동시에 돌보는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정작 자신을 돌볼 여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 50~64세 여성 가운데 자신의 삶에서 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여성의 47%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또 50~64세 여성의 5분의3은 자신의 개인 재정 상황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이는 65세 이상 여성의 5분의2보다 높은 수치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답한 비율은 여성 44%, 남성 32%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50세 이상 여성이 경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1년 안에 경제 더 악화" ... 남성은 39% 50~64세 여성 55% "은퇴 자금 마련 자신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치권이 50세 이상 여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개선 성과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셜연금 보호와 의료비 관리,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 완화 등 장기적 경제 해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앤더슨은 "단기적인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여

성들이 겪고 있는 장기적 재정 불안을 해소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불안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특히 은퇴를 앞둔 여성들은 재정 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친척이나 친구를 돌보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건강과 재정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 트랜스아메리카 은퇴연구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여성의 5분의 2 이상이 자녀가 아닌 다른 가족이나 지인을 돌본 경험이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상자금은 3000달러에 불과하지만 남성 근로자는 1만 달러였다. 은퇴 저축 역시 여성은 평균 5만6000달러로 남성의 9만2000달러보다 적었다.

인유희 객원기자

사회보장국 업무 배분 전국 단위로 전환

이달 7일부터 전면 개편
지역별 업무 처리 사라져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7일부터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이번 개편은 신청 절차와 업무 처리 방식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변화의 핵심은 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예약과 업무 배분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SSA는 지역별로 설치된 지부별로 지역 주민들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중심 처리 방식 대신 전국 단위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즉, 초기 청구 예약을 전국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초기 청구 예약 전국 일정 시스템(NASC)'과 업무를 전국 단위로 분산 배정하는 '전국 업무

관리 시스템(NWLM)'이 본격 가동한다. 전국 통합 시스템은 디지털 서비스와 처리 센터는 물론 현장 지부에도 모두 적용한다.

새 시스템이 가동하면 SSA 직원은 NASC를 통해 모든 초기 청구 예약을 관리한다. 예약 업무는 전국 단위로 고용 인력과 전문성에 따라 배분하며 관리자가 직원의 역량을 고려해 업무를 할당한다.

개편의 배경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지난해 SSA를 떠난 직원은 약 7000명이다. 인력이 줄면서 지역별로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다른 주의 직원도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주에서 전화를 건 신청자들이 전혀 다른 주의 상담원과

통화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전국 통합 처리는 SSA 역사상 전례 없는 변화로 평가된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SSA 직원은 "우리는 그동안 지역 주민이 요청한 것만 처리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마다 법규정이 다른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의 소득 기준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특정 주의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 타주 사례를 처리할 경우 복잡성이 커질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업무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던 장기 대기 문제가 완화해 상담과 업무 처리가 빨라질 수도 있다.

가족 음성 AI로 복제 노년층 상대 사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음성 복제 사기 전화 주의보를 내렸다. 사기 전화는 주로 소셜 미디어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해, 피해자에게 가족이나 지인인 위함에 처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모바일 결제 앱이나 송금, 기프트카드 등으로 돈을 요구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

연방수사국(FBI)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IC3)에 보고된 노인 대상 사기 사례는 2023년 14%나 증가했다. 최근 연방 검찰청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45개 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5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시니어를 겨냥한 사기는 그 정교함이 새로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

도 발신 번호를 조작해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이 사용되면서 짧은 영상으로도 목소리를 진짜처럼 복제할 수 있다.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기범들이 원하는 모든 말을 실제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낸다.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정보는 소셜 미디어에서 얻을 수 있다.

FCC는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확인 전화를 걸고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부탁이나 체포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위협하는 방식이다.

인유희 객원기자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Xray / CT / MRI 리퍼럴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옛날 매력 프랑스 아르코·아멜리, 케데헌 이길까

오스카 후보 오른 프랑스 애니 2편
주토피아2·엘리오 등과 경쟁 벌여
“다양성에 대한 갈증, 임계점 다다라
고전적이고 철학적인 2D 다시 이복”

디즈니와 픽사의 나라, 미국의 애니메이션에 프랑스 작품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유력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올해 아카데미 상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의 후보작 5편 중 2편이 프랑스 작품이다. 11일 국내 개봉을 앞둔 ‘아르코’와 지난 1월 개봉한 ‘리틀 아멜리’로, 두 편 모두 2D 애니메이션이다. 매끈한 질감의 3D 애니메이션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고전적인 2D 애니메이션이 주목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에 따르면,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제 98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소니·넷플릭스), ‘주토피아2’(디즈니), ‘엘리오’(픽사), ‘아르코’(리멤버스·마운틴 A), ‘리틀 아멜리’(이키 필름·메이비 스튜디오)가 경쟁을 벌인다. 이 중 프랑스 작품인 ‘아르코’와 ‘리틀 아멜리’는 나머지 세 편의 미국 애니메이션과 그림체부터 다르다.

리닝타임 88분인 ‘아르코’는 기후위기로 지구가 망가진 탓에 사람들이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사는 2932년, 소년 아르코가 누나의 망토를 훔쳐 가족 물레 시간 여행을 떠나며 시작된다. 공룡을 보겠다고 집을 떠난 소년은 2075년 젛빛 지구에 불시착한다. 그곳엔 어디

론가 떠나고 싶은 소녀 아이리스가 있다. 타지에서 일하는 부모는 매일 밤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고, 집안일 로봇이 그리움의 허기를 겨우 달래줄 뿐이다. 그런 아이리스의 눈앞에 무지갯빛 망토를 입고 숲속에 쓰러져 있던 아르코는 보호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미래 풍경을 담은 SF 판타지 애니메이션이지만 색감은 고전적이다. 특히 작품 곳곳에 등장하는 무지갯빛은 컬러 TV 초기 시기에 쓰이던 ‘테크니컬러(Technicolor)’다. 묵직하고 채도 높은 원색이 투박하게 펼쳐지는 게 특징이다. 실제 ‘아르코’를 공동 제작한 우고 베네투누 감독은 자신의 스튜디오 ‘리멤버스’를 소개할 때 “디지털의 매끈함보다 1970~80년대의 종이 잡지와 필름이 주던 질감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아르코’는 97회 전미비평가위원회(NBR) 장편 애니메이션상, 제49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작품상과 사운드트랙상 등을 수상했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제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장편 등에서 후보에 올라 이미 ‘케데헌’과 수차례 맞붙었다.

반면 ‘리틀 아멜리’는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아름다움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프랑스 문단에서 활약하는 벨기에 작가 아멜리 노통브(59)의 자전적 소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원작이다. 세 살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삶에 대한 철학적 주제를 수채화 같은 그림체에 담았다.

리닝타임 77분인 ‘리틀 아멜리’는 일본의 작은 산골 마을에 자신을 신이라

믿은 벨기에 아기 아멜리가 탄생하며 시작한다. 생명이 태동하는 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겨울까지 매해 다른 색깔을 뿜어내는 일본의 사계절을 온몸으로 탐험하며 점차 자기중심적 사고가 주변으로 확장된다. 일본인 이모니시오와 우정을 쌓는 기쁨,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겪는 모든 ‘첫 순간’들을 유아기의 천진난만한 시선으로 해석한다.

‘리틀 아멜리’는 선과 색이 선명한 ‘아르코’와 달리, 파스텔 톤의 색이 번지는 기법으로 영상미를 극대화했다. 이는 기억의 저편에 있는 유아기를 떠올릴 때의 따뜻하고 흐릿한 잔상을 표현한 방식이다. 49회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관객상, 제51회 LA비평가협회상 애니메이션상, 27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장편 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창완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는 “2002년 오스카 시상식에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이 신설된 이후 수상작의 90%는 3D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다양성에 대한 갈증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극장 애니메이션에 기대하는 판타지가 고전적이고 철학적인 2D 애니메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애니메이션계의 하버드라 불리는 고블랭 예술학교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 기관인 국립영화영상센터(CNC)가 예술성이 높거나 실험적인 작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며 다양한 작품 제작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아르코’와 ‘리틀 아멜리’ 감독 모두 고블랭 출신이다. 정은혜 기자



11일 개봉하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아르코’는 2932년에 사는 소년 아르코(왼쪽 사진)가 2075년에 불시착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각색한 ‘리틀 아멜리’와 함께 오스카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다. [사진 판씨네마, 영화사 진진]

유부남 된 ‘PGA 골퍼’ 김주형, 아내는 선교사 이용규의 딸

〈베스트셀러 ‘내려놓음’ 작가〉

작년 말 혼인 사실 뒤늦게 알려져
가족모임서 성경공부로 친분 쌓아



김주형과 장인 이용규 선교사, 장모 최주현 선교사. [사진 김주형]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무대에서 활약 중인 김주형(24)이 지난해 말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난 2024년 이용규 선교사 가족이 안식년을 맞아 김주형이 살고 있는 앨러스에 머물며 시작됐다. 가족 식사 모임에서 처음 마주한 뒤 성경 공부를 함께 하며 친해졌고, 연인으로 발전한 뒤 결혼까지 이어졌다.

당초 학생 신분인 배우자 이서연 씨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결혼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주형이 결혼 반지

를 낀 채 선수 모임에 나타나면서 알려졌다. 형제처럼 지내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는 부부 동반으로 식사도 했다.

장인 이용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계에서 독보적인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가족과 함께 몽골로 건너가 선교사로 헌신했다. 울란바토르에서 7년을 보낸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

동해 자카르타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선교에 매진하고 있다. 그의 삶과 생각을 담은 저서 『내려놓음』은 76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김주형은 “서연 씨의 살아온 경험이 나와 비슷해 더 끌렸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태국 등에서 자랐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잠시 한국 생활을 거쳐 2022년부터 미국에서 활동 중이다. 이서연 씨는 미국 명문 스미스 칼리지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며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마친 재원

이다.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나가 있다. 부모님을 닮아 검소한 생활을 한다. 변호사가 돼 미국 연방정부에서 공공 정책을 다루는 게 꿈이다.

김주형은 지난 시즌 슬럼프를 겪었지만 올 시즌 초반 5개 대회에서 모두 컷을 통과하며 흐름을 되찾고 있다. 최근 열린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서는 34위를 기록했다. “결혼 후 마음이 편해지고 책임감도 생긴다”는 게 그의 말이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곡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도박사들이 뽑은 월드컵 우승 후보
 16년만에 우승컵 노리는 스페인
 슈퍼컴퓨터 산출 확률서도 1위
 2위 잉글랜드, 3위는 프랑스
 브라질·아르헨티나도 빅5 포함

6월 개막하는 북중미월드컵을 앞두고 글로벌 베팅업체 윌리엄 힐이 '무적함대' 스페인과 '축구 종가' 잉글랜드, '아트 사커' 프랑스 등을 유력 우승 후보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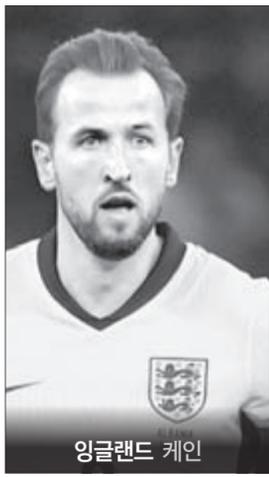
윌리엄 힐이 3일 공개한 월드컵 우승 후보 배당률을 따르면 스페인이 9/2로 본선 무대를 밟을 48개국 중 가장 낮았다. 잉글랜드(11/2)와 프랑스, 브라질(이상 15/2), 아르헨티나(8/1)가 그 뒤를 이어 '빅5'를 구성했다. 배당률이 낮을 수록 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의미다.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의 월드컵 정상 탈환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축구 통계 전문 업체 옵타가 슈퍼컴퓨터를 통해 산출한 월드컵 우승 확률에서도 17%로 전체 1위에 올랐다. 공격 선봉 역할은 2007년생 '초신성' 라민 야말(19·바르셀로나)이 맡는다. 지난 2024년 스페인의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우승을 이끈 그는 '유로와 월드컵을 석권한 최초의 10대 선수' 타이틀에 도전한다.

잉글랜드는 1966년 자국 대회 이후 무려 60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다시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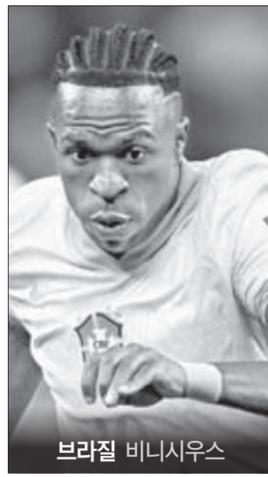
스페인 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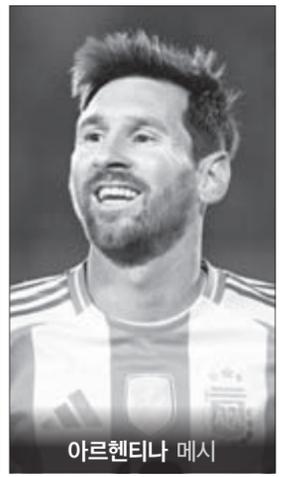
잉글랜드 케인



프랑스 음바페



브라질 비니시우스



아르헨티나 메시

“이번 월드컵, 다섯의 싸움”

는다는 각오다. 슈퍼컴퓨터는 잉글랜드의 우승 확률을 3위(11.8%)로 관측했지만, 도박사들은 스페인 못지 않은 강자로 분류했다.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33·바이에른 뮌헨)의 존재감 때문이다. 케인은 2025-2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4경기에서 30골(득점 1위)을 몰아쳤다. 지난 시즌(26골·득점왕) 기록을 훌쩍 뛰어넘어 절정의 골 결정력을 뽐냈다.

2018년 러시아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는 3연속 결승행과 왕좌

복귀가 목표다.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28·레알 마드리드)의 발끝에 기대를 건다. 4년 전 카타르 대회에서 결승전 헤트트릭을 비롯해 8골을 터뜨리며 득점왕에 올랐다. 올 시즌 라리가 득점 선두(23골)인 그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끌며 '메달 두(메시+호날두)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을 위한 대관식을 치르려는 각오다.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도 우승에 도전할 경쟁력이 충분하다. 브라질은 최다

우승국(5회)이지만 마지막 우승 이력이 24년 전인 2002 한·일월드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26·레알 마드리드)와 이스테반(19·첼시)의 원투 펀치로 정상 탈환을 노린다. 아르헨티나는 또 한 번 '라스트 댄스'에 나서는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를 앞세워 2연패를 준비 중이다. 메시는 월드컵 본선 최다 출전 기록(26경기) 보유자로, 22개의 공격 포인트(13골 8도움)를 기록 중이다.

한편 윌리엄 힐은 흥명보 감독 이끄

는 한국의 우승 확률은 전체 48개 참가국 중 35위(300/1)로 전망했다. 지난해 옵타가 내놓은 우승 확률 0.3%(34위)와 엇비슷하다. 다만 한국이 우승이 아닌 8강 진출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우승 확률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지난달 출국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현지를 직접 돌며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한 뒤 지난 1일 귀국한 홍 감독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US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 '우즈 메달' 받는다

US 주니어 챔피언은 '우즈 트로피' 우즈, 두 대회 3연패 한 유일한 선수 메달·트로피 이름 새겨 발자취 기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이름이 미국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에게 수여하는 메달과 트로피에 새겨진다.

미국골프협회(USGA)는 3일 "US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메달과 트로피를 각각 '타이거 우즈 메달'과 '타이거 우즈 트로피'로 명명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에 열리는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8월 예정인 US 아마추어 챔피언십부터 새 명칭을 적용한다.

USGA는 "타이거 우즈는 두 대회에서 각각 3연패를 달성한 유일한 선수"라며 "메달과 트로피에 이름을 새겨



타이거 우즈 트로피와 메달로 이름을 붙인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 트로피(왼쪽 사진)와 US 아마추어 챔피언십 메달



[사진 USGA]

그가 아마추어 골프 무대에 남긴 독보적 발자취를 기념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즈는 지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연속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을 석권했다. 이어 1994년부터 1996년

까지는 US 아마추어 챔피언십 3연패를 달성했다. 프로 데뷔 이후엔 USGA가 주관하는 US오픈에서 총 세 차례(2000-02-08) 정상에 올랐다.

USGA 주관 대회에서 9차례 우승한 건 20세기 초반 당대 최고의 골퍼로 명성을 떨친 보비 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이다. 존스는 프로로 전향하지 않고 아마추어 신분을 유지하며 US 오픈에서 4차례(1923-26-29-30),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에서 5차례(1924-25-27-28-30) 우승한 레전드다. US오픈과 US여자오픈의 경우 USGA는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금메달의 명칭을 지난 2012년 각각 잭 니클라우스 메달과 미키 라이트 메달로 명명한 바 있다. 두 선수 모두 최다 우승자다.

우즈는 "USGA가 개최하는 대회들은 내 골프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다"면서 "US 주니어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US 아마추어 챔피언십은 골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남긴 발자취를 인정받는 건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서 "내 이름이 담긴 메달과 트로피가 어린 선수들이 골프의 역사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완 USGA 회장은 "우즈가 아마추어 신분으로 달성한 기록들은 단순히 통계적 가치를 넘어 아마추어 골프의 경쟁력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면서 "앞으로 탄생할 아마추어 챔피언들이 트로피와 메달을 통해 우즈가 남긴 업적과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지훈 기자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민지 변호사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VA 전화 TEXT: 703.593.9246
 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교통사고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3월
구
인
광
고

함께 성장할 회사 임원(Director)을 찾습니다.

미국 FDA에서 정식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 사업을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회사 임원(Director)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배너핏을 함께 나눌 비전과 열정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로 연락 주시면 편리한 시간에 미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을 환영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며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일을 찾는 분
-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전환점을 만들고자 하는 분
- 역량에 따라 무한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기회를 원하시는 분
-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향, 성실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분
-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분
- 나이, 성별, 이중언어 여부 무관
- 영어 또는 기타 외국어 가능자는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 본인의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 애난데일, VA (P & A USA Inc)
mydexa21@gmail.com / 571-668-0805 (문자요망)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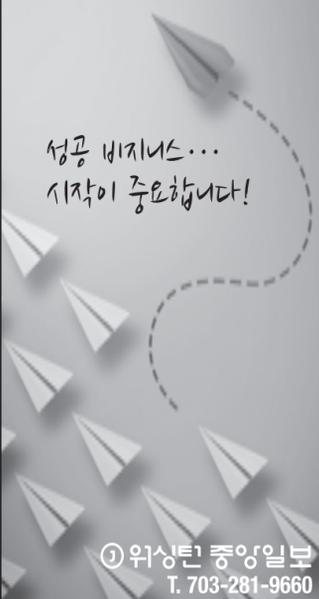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3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좌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위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니
쉬)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세탁/이미용/기타

중고차 팝니다.
현대 산타페 2020, 실버, 8만 마일,
상태 매우 양호, \$18,000
240-205-4949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사용 밥기계(일본제품) 6,000불
2. 욕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 스톤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박,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영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트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유 경험자, 파타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손사이드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시지 주세요)

엘리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 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영어 가능한 델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 - 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비속권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선 나이, 학력, 경력, 성
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싱글/타운/방 렌트

메릴랜드 엘리킷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 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룸 방 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룸 방 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 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쿠팡 \$15만, 수월한 운영
3. 애난데일 한/일 식당 \$27만
4. 애난데일 포차 컨셉으로 식당하실분,
대로번 위치
5. 락빌, 저먼타운, 엘리킷시티
->식당 파실분 연락바랍니다. 바이어대기중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3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킷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차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테권도장 나간자리,
2,750 sf
▶문미에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 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곳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 전문/곳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공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번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력자, 한/영 능통자 우대
폴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폴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폴/파타임,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력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
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나.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무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

어가능자
이력서: dceyeclicn@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 있으며, 영주권 스펜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
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십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 가능 (폴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 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타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Fair Oaks Mall내 New Macy's 옆에 위치
JC Penney, Macy's, Lord & Taylor, JJ Watch & Jewelry Precise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3월 4일 수요일 중앙일보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들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일식당에서 직원 구함 - 세컨드 스시 웨프 - 서버 (영어필수,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RT-1판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443-618-7141 (문자)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 (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판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함.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헬퍼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 정육부 매니저 1명, -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엘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집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자동차/정비/바디샵

풀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자 구함
410-446-9981

기타 구인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메케닉
▶703-220-1400

애견 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
▶571-660-8182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맥클린 한국 학교에서 교사 모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분
571-235-8997 / 703-505-5760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이트한 부엌 (그레이트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킹 다수, 교통 편리
▶703-477-311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 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데크,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팍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교, 234/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1. 게이더스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션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콧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 (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스프링필드 타운홈 렌트 \$3,000 방2, 화2.2,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 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703-919-0472

콘도 렌트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 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 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방 렌트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로튼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워크아웃, 유포, 방2, 거실, 부엌, 욕실, 세탁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I-95 1마일, 즉시 입주 가능
703-774-4939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 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H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양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양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방 하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잠만 주무실분
703-732-1246

찬들리 롯데 근처 싱글 하우스 위층 방 렌트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 안 예사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춰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스프링필드 (Backlick & Braddock이 만나 는 곳) 조용한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 렌트 워크아웃, 간단 취사 가능, 교통 편리, 주차 넉넉, 남자분 환영
703-750-2795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사무실/점포 렌트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 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노바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1. 알디 고급 싱글홈 \$1,725,000 방5, 화 5.5, 최고급 빌더, 2024년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된 집,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방과 화장실
2. 센터빌 타운 하우스 \$449,900 집 전체를 업그레이드 한 밝고 환한 타운홈, 방3, 화 2.5, 1/2/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부엌, 새로 꾸민 화장실
3. 헌돈 콘도 \$310,000 방2, 화2, 예쁘게 새로 단장한 콘도, 맨 윗층,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엌, 새 페인트, 새 조명과 전등, 교통 편리
▶703-813-8949

클락스빌 타운홈 \$759,000 방3, 화 3.5, 차고
▶301-318-4242/443-668-0453

1. 알링턴 싱글홈 \$1,600,000 방4, 화3, 3,056sf, 2000년도에 지은 집
2. 찬들리 싱글홈 \$1,089,000 방4, 화3.5, 4,237st, RT-50 사우스라이딩 경계선
3. 웨스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렇게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 2호점 (플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3월 15일까지
10% 글로벌 세일 및 액세서리 선물
등!!

www.givingtreepetresort.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지?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OK 택시

장거리 영업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TAXI

엘리콧시, 락빌, 애난데일

노기사

571-332-3987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3월 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방4, 화3.5, 2,247sf, 하이스쿨 주변, 조용한 주택가
▶703-486-6082

1.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욕,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타운 \$600,000
방3, 화2.5, 차고1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703-919-04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찬들리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3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타운홈
4. 센터빌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703-231-55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3.5, 차고2, 엔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2.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5, 차고2, 넓은 구조와 잘 꾸며진 벽돌 집, 나무 마루
3.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5, 차고2, 웃은 학교,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한 집
4.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2, 새 집 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703-899-899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 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2, 지하올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 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타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워싱턴 DCSE 타운홈 \$649,000
방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2. 워싱턴 DC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예쁜 집
▶410-417-7080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CO
2. 쿵푸티 \$15만, 수월한 운영
3. 애난데일 한/일 식당 \$27만
4. 애난데일 포차 컨셉으로 식당하실분, 대로변 위치
5. 락빌, 저먼타운, 엘리컷시타
->식당 파실분 연락바랍니다. 바이어대기중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타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의에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페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중고 매매 / 기타

현대 산타페 2020, 실버, 8만 마일, 상태 매우 양호, \$18,000
240-205-4949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티우 밥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몰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 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타,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엄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피아노 레슨 합니다.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낄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적게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약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손 사이딩 울드 하우스 메케니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 & 자부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터넌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급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 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믿고 맡겨주세요.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 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승 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 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 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 번 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 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니
- 준 메케니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시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응급(철, 스텐, 알미늄)/제자 및 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벽,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드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블리터, 워커스킬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펌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not so bad;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Two co-workers are leaving the office...)

(직장동료 둘이 퇴근을 하면서...)

Paul: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폴: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Alberto: I'm going skiing. I'm taking off Monday too.

알베르토: 스키타러 갈 거야. 난 월요일도 쉬거든.

Paul: It's going to be cold up there.

폴: 스키장은 추울 텐데.

Alberto: Not so bad.

알베르토: 그렇게 춥지 않아.

Paul: You know I've never been skiing.

폴: 있잖아 난 스키 한번도 타본 적 없어.

Alberto: You've got to be kidding!

알베르토: 농담이겠지!

Paul: It's no joke. It's the truth.

폴: 농담 아니야. 진짜야.

Alberto: Why? The mountains are so close.

알베르토: 어떻게? 산이 이렇게 가까운데.

Paul: I can't handle the cold weather.

폴: 난 날씨가 추운 건 못 견디거든.

Alberto: You are missing some really beautiful scenery.

알베르토: 절경을 못 보기도 하겠다.

기억할만한 표현

▶ take off (a day or days): (하루 혹은 며칠을) 쉬다.

"I'm taking Friday and Monday off."

(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쉬어.)

▶ You've got to be kidding (me): 농담이겠지. 말도 안돼.

Roger: "I've lost the concert tickets."

(라저: 나 콘서트 표 잃어버렸어.)

Jim: "You've got to be kidding me."

(짐: 농담하는 거지.)

▶ can't handle: 견디지 못하다.

"She doesn't want anyone to think she can't handle the pressures of the job."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거라는 시선을 받기가 싫은 거야.)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열쇠

(1)상처 보호, 붕대 고정에 쓰이죠 (3)우상혁 선수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육상 종목 (5)판소리꾼이 창을 할 때 고수가 장단을 치면서 좋다, 좋지, 얼씨구 따위의 삽입하는 소리 (7)담배를 썩 많이 피우는 사람 (9)장기간 누워 있는 경우,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 (11)남을 속이기 위해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꾸미는 형세. □□위□ (13)매우 적은 액수의 돈. ~한 낱 없다 (15)미리 정하여 놓은 시각이 되면 저절로 울리죠 (16)대변이 잘 누어지지 아니하는 병 (17)오랫동안 쓰고 매만져서 길이 든 흔적. 이 책에는 들어가신 아버님의 ~가 묻어 있다 (18)술 바닥에 놓여 불은 밥 (20)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 있는 것 (22)진흙탕에서 싸우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치열하게 다툼. □전□□ (24)해야 할 일. 불일 (26)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당하거나 준비하는 자금 (28)잠이 들게 하는 약 (30)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 두 사람의 견해는 모두 ~을 갖고 있다 (31)두 그릇의 몫을 한 그릇에 담은 분량

세로열쇠

(1)물이나 광천에 몸을 배꼽까지 담고 하는 목욕 (2)매운맛이 나는 대표적인 양념 채소.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온대, 열대에서 널리 재배된다 (3)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영서 지방에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 초여름에 불어오는 ~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 죽어 애태우는 농민들이 많다 (4)건강하고 튼튼한 체격. ~이 장대하다 (6)술과 들. 그는 ~ 오천 평을 갖고 있다 (8)사람을 부르는 신호로 울리는 종 (10)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망신. 너는 동생하고 싸우는 것이 ~하지도 않나? (12)판판하고 넓게 킁 나뭇조각. 널빤지. ~를 벽에 고정하여 간이 선반을 만들었다 (14)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계의 여러 가지 변동과 이변 (18)누덕누덕 기운 흰 옷.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만 걸치고 살았다 (19)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늘 써 내려 오는 방법. 상□□□ (21)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 (23)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25)음식 속에 들어 있는 곡물 이외의 것 (27)오늘 (29)같은 수를 두 번 곱함

스도쿠

	9		3		7	8		6
	8	1			6			4
	7				8			
			2			4		
7	4			6		3		9
				8				1
				7	2	5		4
3	2				5			7
5		7		9		1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8	1	5	6	4	7	9	3
7	9	6	5	1	8	4	2	3
4	3	5	2	7	9	6	1	8
1	5	9	4	8	2	3	6	7
6	2	3	1	9	5	8	4	7
8	7	4	6	3	2	9	5	1
5	6	2	8	4	1	3	7	9
3	4	7	9	5	6	1	8	2
9	1	8	2	3	4	5	6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
Korean style chicken**

**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타 지역 **매매**

알래스카지역
*중식셰프...0명
*스시맨...0명
취업결격사유없는분
숙식제공
(858)337-0982

알래스카 일식당
하루매상 \$3,000
매매가격 \$30만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용순, 정상순
찾습니다**

**전에 코비나에 거주했음
뉴욕의 김기정이
찾습니다.**

연락 (917)553-0000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훌훌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똥배·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클 터치 (213)675-6877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Hotdeal.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야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
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WesternAve.#100 Los Angeles, CA 90020 | TEL:213-272-6031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Since 1996 CHRISTIAN MUTUAL MED-AID

와 함께 하는

건강한 인생 & 의료비 나눔

크리스천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의료보험이 아닌 크리스천들을 위한 의료비 나눔 사업



- CA, DC, MA, NJ, RI 주: 의료보험 미가입 벌금 면제 혜택
- IN, MO 주: 회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30여 년의 신뢰와 경험, CMM과 함께라면 든든합니다

CMM 회원 혜택

✓ 경제적인 월회비

- 월 \$45로도 질병당 입원 및 수술비 최대 \$150,000
- 25세까지 부양 자녀 1유닛 회비 적용

✓ 글로벌 의료 서비스

- 미국, 한국 포함 전 세계 어디서나 이용 가능
- 원하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

✓ 의료비 나눔

- 질병당 최대 \$150,000
-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1,000,000 추가
- 가입 전 질환에 대한 의료비 나눔 범위 확대

✓ 100% 한국어 서비스

- 한국어와 영어 서비스 제공
- 간단하고 신속한 가입 절차
- 연중 언제든지 회원 가입 가능

지금 바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나에게 맞는 레벨을 확인하세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Since 1996 CHRISTIAN MUTUAL MED-AID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773-777-8889
2315 Sanders Rd.
Northbrook, IL 60062



www.cmmlogos.org
info@cmmlogos.org

가입문의: 773-777-8889 (Ext.5002) 동부지부 김준범 지부장: 917-535-1144, 917-500-1330

Disclaimer: Logos Missions Christian Mutual Med-Aid (hereinafter "CMM") is a Christian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facilitating the sharing of medical expenses of its members. CMM is a not-for-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6 and federally recognized as a 501(c)(3). CMM is NOT an insurance company. The plan of CMM operation or any other CMM document must not be considered an insurance policy. All assistance from CMM for your medical bills is coming from the totally voluntary participation of CMM members. Membership or being a member of CMM is a missionary concept and signifies participation in and support of a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Regardless of medical expenses sharing and operation of CMM, the member is personally liable for payment of their medical bills.